SEOUL NATIONAL UNIVERSITY HIGH SCHOOL ALUMNI NEWSLETTER

서울사대부고

2014 가을호
제92호
동창회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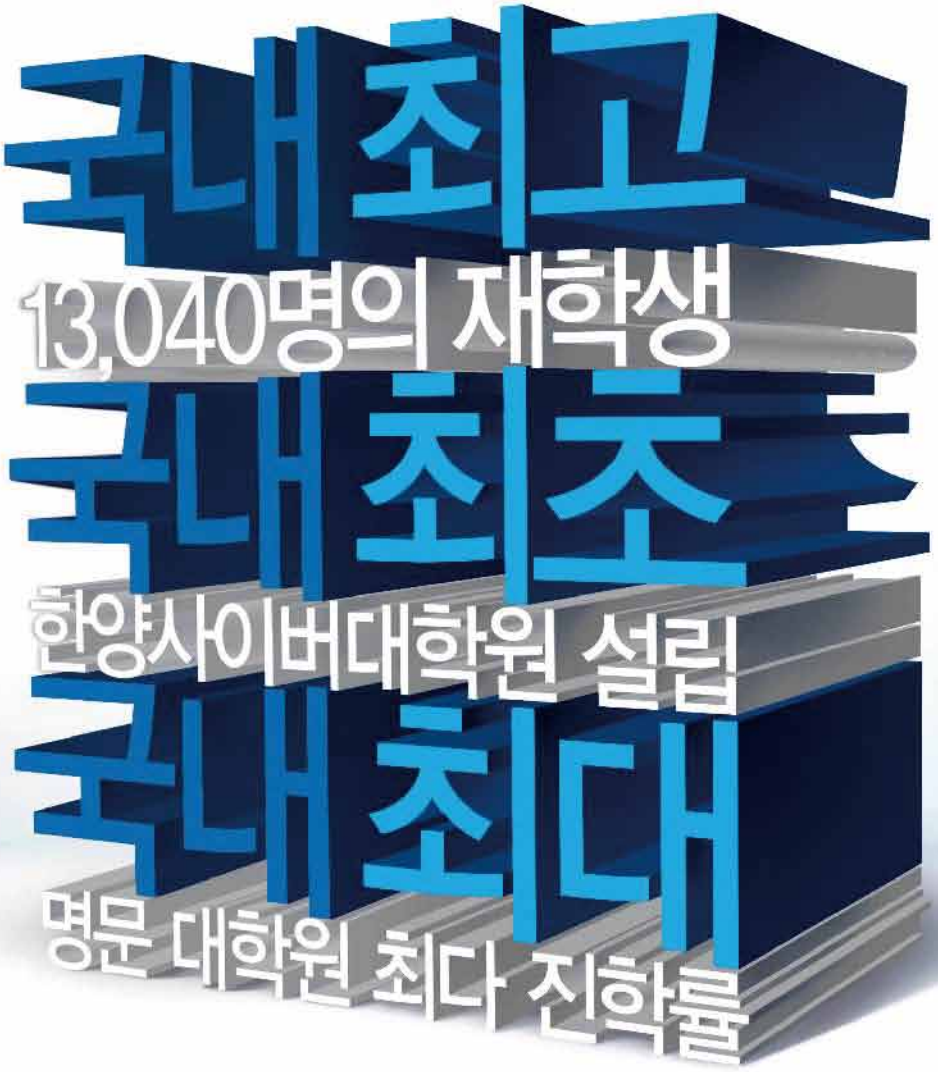
졸업 30주년 맞은 36회의 '카르멘' 공연

No.1을 누려라

한양사이버대학교
www.hanyangcyber.ac.kr

1등의 역사가 쌓이면
한양사이버대학교입니다

언제나 대학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온 1등 한양사이버대학교!
명문사학 한양의 인프라를 누리십시오



한양사이버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 학부 모집기간 | 12월 모집예정

공학계열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자동차IT융합공학과, 해킹보안학과
인문·교육계열	교육공학과, 영어학과, 아동학과, 미술치료학과, 상담심리학과, 일본어학과, 청소년학과
사회계열	부동산학부, 사회복지학부, 보건행정학과, 법학과
경제·경영계열	경영학부, 경제금융학과, 광고미디어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시니어비즈니스학과
디자인계열	디자인학부

표지사진 조용식 35회

표지설명 졸업 30주년을 맞은 36회의 오페라 '카르멘' 기념공연

CONTENTS

2014 가을호 vol.92

04 **선농춘추** 갓끈동부를 바라보며
06 **종합뉴스** 선농축전, 선농가족체육대회 등
08 **회원동정**
10 **인터뷰** 권오준 20회 포스코 회장
12 정진구 16회 보바타임 대표
14 **기고** JMT대장정 마친 20회
15 **만화**
16 **화보** 사진으로 보는 선농축전
18 **임원회비 및 연회비 납부자 명단**
21 **동기회 소식**
29 **기고** 입학 60주년 기념여행기, 9회
30 졸업 50주년 맞은 16회
31 **지회 소식**
36 **지회 탐방** 고양파주지회
37 **기고** 남가주지회
38 **동아리 소개** 30회 삼공산악회
40 **신간안내** 변덕 외 3권
41 **추억의 사진 한 장** "북에서도 잘 지내니? 상숙아"
42 **모교 소식**

발행인 허수창 **편집인** 이성일 **발행일** 2014년 9월 22일 **발행처** 서울사대부고동창회 **홈페이지** www.snubugo.net
편집위원 성백엽(20) 김경오(20) 김진혁(27) 김현숙(27) 임흥순(30) 신동미(30/사무부장) 김서중(31) 조용식(35) 강현철(44) 이상욱(44)
주소 100-830 서울시 중구 다산로 43 **전화** 02)588-7871 **팩스** 02)588-7872 **이메일** snubugo@chol.com **디자인** 중도기획 02-2278-2240
1982년 12월 15일 첫 호가 발행된 서울사대부고동창회보는 2만5천여 동문과 더불어 동창회 4대 지표인 참여 · 대화 · 협력 · 번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갓끈동부를 바라보며

주말이면 텃밭에서 갓끈동부를 돌보는 일이 일상처럼 돼버렸다. 갓끈동부는 우리 토종 콩이다. 콩 꼬투리가 무려 50cm, 마치 갓끈처럼 생겨서 붙은 이름이다. 과연 콩의 종주국답다. 한반도와 만주 일원은 콩의 원산지이다.

한때 우리는 세계 최대의 콩 수출국이었다. 발해에서 생산된 콩을 실은 배가 일본으로 가기 위해 두만강에 가득 찼었나 보다. 그래서 '두만강(豆滿江)'이다. 1930년대 일인들의 통계에 따르면 한반도가 콩 생산량 세계 2위였다.

해방 후 미군이 들어오면서 미국은 한국의 콩 종자를 수집해 빼돌렸다. 이를 개량해 현재 미국은 세계 최대의 콩 수출국이 됐다. 반면에 우리의 콩 자급률은 현재 5%도 안된다.

경제 논리에 몰입하면서 종자조차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이 땅에서 산업화가 본격화 되며 우리는 불과 40년 만에 정보통신 대국이 됐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도 많다. 고도성장의 이면에는 세계 최대 갯벌인 서해갯벌의 희생이 있었다. 서해로 흐르는 강줄기는 실개천까지 모두 막아 토목 공사를 일으켜 산업용지와 농지를 조성했다. 이로 인해 후손들이 두고두고 이용해야 할 수산자원이 고갈되기 시작했다. 우리 땅 3면에 바다를 두르고도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수산물의 70%는 수입을 해서 먹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원자력 발전에 23기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 밀집도 세계 1위이다. 원자력 발전은 현재 과학기술로는 분해가 불가능하고 방사능을 내뿜는 '사용 후 핵연료'를 남긴다. 독성이 완전히 사라지려면 10만 년의 세월이 걸린다 한다. 우리의 후손들은 이 사용 후 핵연료를 엄청난 비용을 들여 관리하면서 살아야 한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 좋은 음식, 좋은 옷이 있으면 자식에게 먼저 먹이고 입히는 것이 한결같은 부모 마음이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은 뭔가. 후손들에게 차마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금강 하구와 바다를 낀 이곳 충남 서천의 바닷가 마을. 썰물 때면 마을 앞 섬으로 걸어 들어가 백합이나 바지락, 굴 등을 잡아 꽤 높은 소득을 올렸었다. 그러나 하굿둑이 막힌 이후 바닷가에 토사가 쌓여가며 반농반어는 사라졌다. 1,200명의 학생들로 시끌벅적했던 학교는 60여 명으로 줄었다.

빈집이 수두룩하고 마을 사람들은 대개 독거노인이거나 노부부들이다. 마을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75세 쯤 된다. 젊은 층에 속하는 이장님도 70이 넘었다. 아직도 7, 80대 노인들이 허둥지둥 농사일에 시달린다. 결코 심심해서 소일하는 것도 아니고, 괜한 노욕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다. 고혈압 · 관절염 치료비, 각종 공과금, 영농비. 객지에서 변변찮게 살아가는 자식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려면 농사일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의사가 진단하면 모두 병원에 입원 치료해야 할 육신인데, 30도가 넘는 불볕 더위에 200평 밭의 고추를 따야 하고, 80이 넘어서도 도리깨질을 해 콩을 타작해야 한다.

이들마저 가시고 나면 우리 농촌은 어찌될지 앞날이 어둡다. 이 공간 잘 보존해 후손에 물려주어야 한다. 수천 년 거칠은 할머니의 손끝에서 어머니에게로 물려 내려오던 토종 종자와 함께.

허 정 균 29회

전 한겨레신문사 제작국 부국장
〈뉴스서천〉 편집국장
huhjk@hanmail.net

선농축전

제 23회 선농축전이 9월 14일 서울대에서 열렸다. 이번 축전에는 1회부터 44회까지 총 1,248명의 동문이 참여해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해마다 봄철에 열리던 선농축전은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뜻에서 연기되어 올해 처음으로 가을에 열리게 된 것이다. 서울대 버들골 잔디마당에 기수별로 설치된 텐트 아래에서 아침 인사를 나눈 동문들은 관악산 등반팀과 잔류파로 나뉘어 오전을 보냈다. 산행을 마치고 온 동기들과 합류하여 도시락 점심을 먹은 후 종합체육관으로 이동해 2부를 즐겼다.

2부는 허수창동창회장의 축사와 기금전달식으로 막을 열었다. 졸업 50주년, 40주년, 30주년을 맞은 16회, 26회, 36회가 동창회 측에 기금을 전달해주었다. 이어진 2부의 하이라이트는 공연과 응원. 36회가 30주년 기념으로 선택한 무대는 오페라 카르멘이었다. 프리마돈나를 비롯해 30여명의 합창단이 의상을 차려입고 '투우사의 노래', '하바네라'를 완벽하게 '립 싱크'하여 갈채를 받았다. 카르멘 팀이 대상과 더불어 5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12회의 포크 댄스(우수상, 20만원), 13회 소리내 합창단의 '연가' '노렐라이'도 인기를 모았다. 또한 24회 김일범 동문이 '무시로' '바람'을 하모니카 연주했으며, 31회 하명용의 색스폰 연주는 아마추어의 경지를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이들은 모두 특별상(10만원)을 수상했다. 16회가 최다 참가상(85명)과 응원상을 받아 총 40만원의 상금을 수상했으며, 이외에도 9회, 10회, 14회, 21회, 41회가 참가상(10만원)을 받았다.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 진행자의 음성과 공연의 전달력이 떨어지고, 기념품이 약소하다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오랜만에 만난 동무들의 얼굴과 체육관이 떠나가라 부르는 교가에 묻히기 충분했다.

선농축전에 찬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수창 14회 200만원, 채영세 15회 100만원,
김윤종 16회 100만원, 김종숙 16회 100만원
이종오 20회 겨울장갑 50개
김우정 26회 샤넬향수 10점

동창회 상반기 이사회

동창회 상반기 이사회(허수창 총동창회장 주관)가 7월 8일 동창회관 선농홀에서 열렸다. 이날 박붕배 1회 동문 외 총 72명의 동창회 임원과 동문이 참석해 상반기 결산보고와 하반기 행사일정을 들었다.

하반기 행사로는 지난 5월 치르려 했던 선농축전이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연기돼 9월 14일 서울대 버들골 잔디밭과 종합체육관에서, 동창회장배 당구대회는 9월 27일(토) 강남역 부근 조이클럽에서, 동창회장배 골프대회는 9월 23일(화) 뉴스프링빌 C.C에서, 동창회장배 바둑대회는 10월 5일(일) 모교 체육관에서, 선농가족 체육대회는 10월 18일(토) 모교 운동장에서 열린다. 또 격년으로 개최되는 동문음악축제는 11월 1일(토) 한양대학교 백남음악관에서 열린다. 특히, 제39차 정기총회 및 송년회는 12월 10일(수) 양재동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에서 개최된다.

이날 기부금 처리에 관해서는 "이건희 회장의 기부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 배경과 경위"를 설명한 후에 난상토론을 거친 후 양측이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협의하기로 결의했다.

동창회 수석부회장 새로 선임

7월 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공석 중이던 수석부회장 자리에 김윤종 16회 동문을 추대하고 이사들의 동의를 얻었다. 김 수석부회장은 허수창 동창회장과 남은 임기를 같이 하게 된다.

16, 26, 36회 총동창회 발전기금 기탁

올해 졸업 50주년, 40주년, 30주년을 맞은 16회, 26회, 36회가 9월 14일 선농축전 행사장에서 발전기금 1,000만 원씩을 전달하는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선농가족체육대회 준비회의 개최

지난 7월 3일 신사동 화로사랑에서 30회부터 44회까지 30여 명의 기별회장과 총무가 모인가운데 "제13회 선농가족체육대회" 준비회의를 가졌다. 행사는 10월 18일(토)이며 모교 운동장에서 오전 10시부터 개최된다.

풍성하고 알찬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대회를 주관하는 한승주 42회 기별회장이 대회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17회 봉사단, 동창회관에서 봉사활동

17회 봉사단은 지난 6월 26일과 8월 28일에 동창회관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는 봉사활동을 벌였다. 주차장 옆 화단 정리와 얼룩으로 지저분했던 벽면을 새로 페인트칠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담배꽁초 줍기와 바닥에 찌든 묵은 때를 닦는 등 동창회관 주변을 쾌적한 환경으로 변화시켰다. 17회 봉사단은 2013년 11월 발족돼 인천 은혜병원 내 소망의 집에서 음악제 위문공연을 했고, 과천 대공원 둘레길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운동도 벌였다. 연말에는 소망의 집 위문공연과 장애인 복지관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총동합창단(가) 창단

총동합창단(가)이 창단하게 됐다. 김종숙(16회 · 수석부회장) 총동합창단 창단준비위원장은 8월 19일과 22일 선농합창단과 연합합창단 단원들을 만나 하나로 통합된 총동합창단 창단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즉석에서 입단원서를 접수받았다. 이날 참석했던 선농과 연합합창단 단원들은 흔쾌히 입단 신청서에 서명하고 새로운 합창단 창단이 동문 화합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 기쁨을 같이했다.

신임 사무처장 취임: 강석완 20회

지난 8월 1일, 강석완 20회 동문이 이성일 25회 사무처장의 후임으로 동창회 사무처장으로 임명됐다. 앞으로 동창회의 전반적인 실무를 총괄하게 됐다.

제39차 정기총회 및 송년회

◆ 일 시 : 12월 10일(수) 오후 6시 30분
◆ 장 소 : 양재동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
◆ 회 비 : 5만원

제14회 동창회장배 바둑대회

◆ 일 시 : 10월 5일(일) 오전 9시
◆ 장 소 : 모교 체육관

제13회 선농가족체육대회

◆ 일 시 : 10월 18일 (토)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사대부고 운동장
(지하철6호선 고려대 입구 역)
◆ 회 비 : 개인 및 가족 2만원

절취선

입 단 신 청 서

성 명	(回)
휴 대 폰	
집 주 소	
회사명, 주소	
파 트	소프라노( ) 테 너( ) 알 토( ) 베 이 스( )

상기 본인은 총동창회에서 새로 창단하는 서울사대부고 총동합창단(가칭)의 단원으로 입단코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며, 합창단의 회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단원으로서 성의를 다하여 합창단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4년 월 일

(서명)

총동합창단 준비위원장 귀하

수 상

신상만 13회_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인 동문이 8월 7~12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필라코리아 세계 우표전시회 테마틱(문화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세계우표전시회'는 세계 초고가 희귀우표를 비롯한 세계 70여 개 국 500여점의 작품이 전시되는 세계인의 문화축제로 10년을 주기로 개최된다. 신동문은 '어린이 예찬'이라는 주제로 우표를 전시했다.

성기학 17회_ 영원무역회장이 국내 패션 · 섬유업계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삼우당섬유패션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6월 2일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상패 및 순금메달을 수여받았다. '삼우당'은 고려 말 중국에 서정관으로 갔다가 목화씨를 들여온 문익점 선생 아호이다. 또한 지난 1994년 섬유패션산업 발전을 위해 제정된 이후 올해로 21년째를 맞는다.

또 8월 19일에는 제 13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성동문이 회장으로 있는 영원아웃도어(노스페이스)는 지난 7월 2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포츠 의류부문 공식 후원사 협약식' 행사를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가졌다.

임희규 20회_ 안산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인 이동문은 학교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8월 말 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이창희 35회 _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인 동문은 지난 6월 2일 국제 정보디스플레이 학회 특별공로상 을 수상했다.

또 8월 2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14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에서 제11회 '머크 어워드'를 수상했다. 머크 어워드는 디스플레이 기술 부문의 뛰어난 과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머크의 액정 연구 100주년인 2004년에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가 주관하는 IMID에서 제정된 기술논문상이다.

회원동정

이인호 7회_서울대 명예교수이며 대한민국 최초 여성대사였던 이동문이 KBS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한편, 지난 7월 19일 시시토크 '판'에 출연해 문창극 총리지명자의 자질과 강연내용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김태련 8회_ 베스트버디스 코리아 회장이 지난 8월 13~14일 양일간 푸르지오밸리 갤러리에서 '2014 베스트버디스 코리아 활동작품전'을 개최했다. 이날 전시회는 베스트버디스 코리아에서 만난 장애우와 비장애우 학생들이 함께 활동하며 만든 작품들을 전시·판매하였으며 판매수익금은 베스트버디스 코리아 활동운영비로 후원된다.

변주선 12회_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겸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인 동문이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긴급포럼"을 7월 16일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또 8월 7~ 9일까지 2박 3일간 국회 헌정기념관, 아이코리아 등지에서 '2014년 제11회 대한민국아동총회'를 개최했다.

송경자 14회_ 캐나다에 거주하는 송동문은 지난 6월 9~ 14일까지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개최한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참석했다. 이모임은 해외 50개국에서 5백20여 명의 평통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전광우 18회_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며 연세대 석좌교수인 전동문은 인터넷뉴스 dongA.com에 '글로벌 투자확대가 국가 경쟁력이다'라는 주제로 기고문을 실었다.

정순덕 18회 _ 한국걸스카우트 서울연맹 국제분과위원장, 세계걸스카우트 아태친선회 임원을 역임한 정동문이 지난 2월 세계걸스카우트, 아 · 태친선 한국위원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김병준 19회_ 대한산악연맹 전무를 역임한 동문은 지난 4월 23일 히말라야 티베트국경에 위치한 루굴라봉(6,899m) 세계최초 등정에 성공한 보고회를 6월 12일 청남동 설악아트홀에서 가졌다. 한국외국어대 산악회 창립 50주년 기념 원정등반대의 단장을 맡아 세계초등의 역사를 이루어냈다.

최남석 19회_ 지난 5월 1일자로 우리나라 최초의 영어 경제월간지인 〈비즈니스 코리아〉의 부사장 겸 편집인으로 취임했다. 이 잡지는 대한항공 등 항공사에서 배포된다. 최동문은 이전에는 역시 영문 경제지인 〈코리아 이코노믹 리포트〉에 근무했다.

권오준 20회_ 포스코 회장인 권동문이 8월 20~21일 이틀간 포항 포스텍에서 개최된 '제26회 포스코 패밀리 기술 콘퍼런스'에 참석해 솔루션 마케팅을 통한 철강 본원 경쟁력 강화에 기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8월 27일에는 경북 경주에 있는 고려제강 건천공장을 방문해 고려제강 부회장 등 임직원들을 만나고 고부가가치 선재 제품 기술개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병달 20회 _ 성균관대 의대 삼성서울병원 교수인 이동문이 8월 13일부터 100일간 1만 5,000㎞를 자전거로 달리는 '원코리아 뉴라시아(One Korea New-eurasia) 자전거 평화 대장정'에 참석했

다. 이동문은 원정대의 일원이면서 전구간 소구간 대원 34명과 취재진 지원팀들 수십명의 건강과 섭생을 책임지는 팀 닥터로 활동하며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등지에서 의료봉사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동문은 올 7월 31일 정년퇴임했다.

조충훈 22회_ 지난 6월 4일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조동문이 순천시장으로 재선됐다. 조동문은 소속 정당의 추천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됨으로써 그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았다. 한편 지난 7월 30일에는 순천시에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를 개최해 발전협의회 회장으로 조동문이 선임됐다.

신성호 25회_ 지난 6월 17일 아주대학 자동차연구센터 대강당에서 아주자동차대학 제6대 총장 취임식을 가졌다. 신총장은 취임식을 시작으로 임기 4년의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신총장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 석사 · 박사를 취득했으며, 1995년 아주자동차대학 교수로 임용된 이래 교학처장과 기획처장 등 대학 내 주요 보직을 맡아 대학발전에 기여했으며 최근까지 산학처장과 산학협력단 부단장을 역임했다.

김영아 27회_ 양화중 교장이던 김영아 동문이 난우중 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원숙 27회_ 미양중 교감이던 최원숙 동문 상경중 교장으로 승진했다.

임종근 27회_ 경일중 교장이던 임종근동문은 서울교육연구정보원 교육과정 연구원으로 전직했다.

강정근 29회 _ 오성안경 대표인 동문이 지난 8월 27일 청계5가 지하상인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주)청계5가 지하쇼핑몰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정권천 31회_ 지난 6월 4일 열린 한국시계협회 창립총회에서 정동문이 초대 협회장에 취임했다. 시계산업계에서 외길인생을 걸어 온 정동문은 업계 회원사들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김명구 32회_ 동기회장을 역임한 김동문이 8월 20일 국제 라이온스 클럽 354-C 지구 부총재에 취임 했다.

행사 전시 개업

이우환 8회_ 올해 6월부터 11월 2일까지 한국 작가로는 최초로 베르사유궁에 10개의 작품을 전시한다. 자연, 시간을 상징하는 돌과 산업사회의 상징인 철을 이용해 문명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이우환의 조각시리즈 '관계항'의 연장선에서 만든 작품들이다.

윤석남 9회_ 우리나라 여성미술계의 거목인 윤화백이 2014년도 광주비엔날레에 초대작가로 신작을 출품했다. 2014년 9월 5~11월 9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제20회 광주비엔날레에 윤 화백이 내놓은 작품은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무용가 최승희를 형상화한 조형작품이다.

윤호섭 14회_ 환경운동가인 윤동문은 2006년부터 8년째 〈녹색환경 여름전〉이라는 환경운동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7월 10~29일까지 서울숲 갤러리에서 '2014 녹색여름전' 전시회를 개최했다. 홈페이지 www.greencanvas.com

이진형 26회_ 삼성엔지니어링에서 34년간 근무했던 이동문이 Global Procurement Partner Co.Ltd(GPC)란 회사를 지난 8월 창업했다. 사업분야는 국내외 플랜트용 기자재 공급 서비스이며 사업장은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28 강남역 쉐르빌 709호다.

이경희 27회_ 지난 8월 22~24일까지 소공동 롯데호텔 부스 1857호에서 'AHAF SEOUL 2014 아시아 탑갤러리 호텔 아트페어'에 조각작품을 출품했다.

강재훈 31회_ 한겨레신문 사진부장을 역임한 강동문이 9월 2~14일까지 종로구 통의동에 자리한 갤러리 류가헌에서 〈꼬부랑 사모곡〉사진전을 열었다. 추석 명절이 포함된 전시기간 내내 애틋한 고향의 향수를 전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홍승직 1회 2014년 8월 4일 별세
윤명진 3회 2014년 6월 11일 별세
신소석 13회 2014년 4월 11일 별세
이인귀 13회 2014년 5월 8일 별세
김영만 13회 2014년 6월 13일 별세
박정남 15회 2014년 7월 31일 별세
최금희 20회 2014년 8월 25일 별세
이종복 23회 2014년 5월 19일 별세
조경환 34회 2014년 6월 2일 별세

故 홍승직동문은 2006년도부터 9년간 1회 기별회장을 맡아왔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뒤 미국에 건너가 워싱턴대 사회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60년 고려대에 사회학과를 개설했다. 실증주의 사회학을 국내 학계에 소개한 고인은 한국 사회학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사회학회 회장, 아시아사회과학연구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94년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부고시절 품은 꿈, '鐵'의 리더십

창립 반세기의 문턱에 다가선 포스코(POSCO)에 철강기술 전문가가 경영 수장이 된 것은 권 동문(20회)이 처음이며, 권 동문은 취임과 함께 확고한 원칙과 조용하고 강한 리더십으로 포스코 본연의 모습을 되살리며 인상적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권 동문의 취임 6개월을 맞아 조선일보는 9월 15일자 기사에서 그의 경영을 '강한 구조조정, 취임 반 년만에 주가 31% 상승...차입금 1조 감소'라고 긍정 평가했다.

한국을 세계 경제 10위권에 바짝 밀어올린 고도 산업생산이 포항제철의 뒷받침 없이 상상할 수 없는 것임은 첨언의 필요가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창립 반세기에 다가선 현재 포스코의 크기를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포스코의 총매출액과 총고용인원수는 집계조차 기술적으로 만만찮은 문제일 것이다. 지난 3월 취임한 이래 언론은 하루가 멀다 하고 권동문과 포스코의 뉴스를 쏟아내고 있고, 그 가운데 포스코가 살 것이라는 회사나 팔 것이라거나 팔았다고 보도된 계열사들의 규모도 일반인의 경제개념에서 한참 벗어난다. 이 거대한 기업의 총수로서 권 동문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울지 역시 가늠하기 어렵다.

포항제철소 용광로의 거대한 불길 그리고 까마득히 뻗어 나간 포항철강단지 - 70년대 우리의 머리에 각인된 국력의 상징이었고 국민적 자부심이었다. 국민소득이 지금의 1/100에도 훨씬 못 미치던 시절 가슴 아픈 종자돈으로 배태된 포항제철은 결단코 성공시켜야 할 국민적 대사업이었고 국민 경제의 근간이 됐으니, 명실공히 국민의 기업이었다. 이후 10여 년간 광양만에서 또 한 번의 대역사가 전개됐고, 새천년 이후 포스코는 국내외에 계열사들을 다각적으로 늘려 갔다. 2000년 포항제철주식회사는 민영화되었고 이름은 포스코로 바뀌었다. 그러나 포스코가 다른 대기업과 다른 특별한 점은 일반 국민의 마음속에 여전히 국민에 의한 국민기업이라는 점이며, 권동문은 이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

"포스코는 선조들의 피와 땀의 대가인 대일 청구권 자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라 일반 기업과는 다릅니다. 포스코 창업세대들은 시대적 소명에 따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회사의 기틀을 다지는 데 헌신했습니다. 포스코는 출발의 역사가 여타 기업과 다르듯이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달라야 합니다. 민영화 이후에도 기업 이익만을 위한 독단적 경영을 하지 않고 국민기업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포스코는 어떤 기업보다도 경영이 투명하고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영성과를 달성하여 주주는 물론 임직원, 고객, 관련 중소기업,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업의 전형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총괄 사장이던 권오준 동문을 회장으로 선출한 포스코 이사회의 지난 1월 결정은 매우 획기적인 것이었고, 그에 따라 언론도 '연구자 출신 경영 총수'라는 데 초점을 맞춰 기사들을 쏟아냈다. 이사회가 밝힌 주요 결정 이유는 "기술연구소장 등을 역임한 철강기술 전문가로 회사 내 기술 개발을 주도했으며 소재 분야 전반에 대한 기술 경쟁력 우위 확보와 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과 "유럽사무소장 등의 경험을 통해 해외 철강사 네트워크와 글로벌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세계 철강업계가 전반적 침체에 빠져 있는 시점에서, 그리고 포스코가 1968년 창립된 이래 거대 공룡으로 자라난 반세기의 문턱에서 포스코가 새로이 새기고 지향해야 할 길이기도 할 것이니, 구구절절 옳은 이유이자 필적 대상 없는 적임자의 선택일 것이다.

권 동문의 학창시절 회고는 그가 포스코의 최고 수장에 이르는 길이 이미 고등학교 때의 남다른 자각에서 시작됐음을 말해준다.

"1965년 입학했을 즈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아래 철(鐵)은 '산업의 쌀'로 불리며 가장 중추적인 산업으로 각광받았고, 당시 사회적으로도 한국 최초의 일관종합제철소 건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때마침 인기 높던 서울대 금속학과에 진학하게 된 것입니다."

권 동문이 박사학위를 한 곳은 교과서에 나오던 그 유명한 철강도시 미국 피츠버그의 피츠버그대학교. 여기서 권 동문은 필생의 교훈이 될 역사적 현장을 접했다고 한다.

"학창시절부터 국가에 '쓸모있는 엔지니어'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유학시절 일본 철강회사로 인해 US 스틸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피츠버그의 경제가 쇠락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이때 기업이 없어지면 도시가 망하고 결국 나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실감케 됐고, '기업은 국가와 사회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됐습니다."

귀국한 권 동문은 포항제철의 연구자로서, 기술개발자로서, 점점 책임 있는 위치에 올랐고, 2000년을 전후하여 일본과 유럽의 선진 철강기술이 갖지 못한 새로운 기술, 포스코 고유의 기술로 자동차 강판을 비롯해 에너지용 강재나 전기 강판 등의 제품을 끊임없이 개발, 출시시켰다.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킨 '연구자 출신 최고경영자'로서의 권 동문이 밝힌 자신의 역할과 비전은 다음과 같다.

"자력 연구를 통해서 고유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연구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며 연구원의 자부심입니다. 연구개발(R&D)을 수익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연구 결과를 제철소 현장에서 구현하고, 고객을 찾아 판매해야 합니다. 바로 이 연구원-엔지니어-판매원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솔루션 마케팅(solution marketing)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회사 경쟁력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자의 보람입니다.

권오준 동문은 포스코 최초로 철강기술 전문가로서 '경영의 수장'이 되었다. 원주, 오성, 오준, 오진, 오용 5남매 모두 부고동문이다.

이 R&D-생산-판매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포스코 미래 경쟁력의 요소이며, 경영자의 중요한 역할은 이러한 협력체계가 경쟁력으로 승화하고 수익 창출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가는 미래 경영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회장에 취임하면서 권 동문은 포스코의 향후 반세기를 향한 포부를 '위대한 포스코 (POSCO the Great)'로 선언했다. 위대한 세종대왕을 Sejong the Great이라고 칭하듯, 포스코를 역사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위대한 기업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POSCO the Great는 영원한 신소재인 철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가운데 개개 구성원의 성장과 보람 그리고 주주와 고객을 비롯한 이해 관계자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존경과 세계인의 인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포스코는 POSCO the Great의 기치를 높이 걸고 포스코인들의 DNA에 있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열정의 불씨를 되살려 새로운 50년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포스코를 이어갈 수 있는 디딤돌을 임직원들과 함께 차근차근 놓아나갈 것입니다."

이 무겁고 무서운 중책을 맡은 권 동문의 학창생활은 앞에 나서는 직책을 사양하고 조용히 공부하는 편이었다고 한다. 한편 동기들은 권 동문이 구기(球技)에 뛰어났다고 귀띔한다. 그러나 정작 특별활동은 운동과도, 금속과도 무관한 생물반.

"농구반을 찾지 못해서 철봉대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누군가 와보라고 해서 간 곳이 생물반이었습니다. 정말로 고마운 것은 지방 출신인 제가 생물반원들의 보살핌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으며, 야외 채집활동을 통해 다져진 우정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마음을 나누는 인생의 절친으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사대부고 동문가족"이 있을까? 남매 5명이 일제히 동문. '천하부고'라는 별칭이 유래된 1950년대 중반, 졸업생 90%의 서울대 합격이 그 계기. 이를 알게 되신 어머님의 강추에 의해 장녀 16회 권원주, 장남 18회 권오성, 차남 20회 권오준, 삼남 24회 권오진, 사남 26회 권오용 동문이 경북 영주에서 줄줄이 상경하여 사대부고에 입학했다. 그러니 형제 간의 질서가 일사분란하고 형제애도 남다를 수밖에 없다.

"집안의 가장 큰 자랑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형님을 기둥으로 하여 우애가 남다르다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집안의 대소사에 전원이 참석함은 물론이고, 언제든 형님이 소집하시면 즉각 모여 소주 한 잔 하는 전통이 아직까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선배 말씀 거역 못하는 고등학교 시절 훈육 때문인 듯도 싶습니다."

조주옥 20회 jojook@korea.com

‘아빠의 칠순잔치’ 20년 숨은 봉사로 얻은 자식들의 선물

정진구 16회 동문을 지난 2001년에 만나 인터뷰한 지 13년 만에 다시 만났다. CNN, 워싱턴 포스트, 시애틀타임즈가 그의 석세스 스토리로 도배를 할 무렵이다. 스타벅스 시애틀 본사에서 그를 ‘올해의 최고 경영자’로 선정하고, 한국에서는 이화여대 앞 1호점을 필두로 테이크 아웃 커피의 신기원을 열었다는 것이 요점이었다.

당시, 동창회보에 기사를 쓰기 위해 2회나 만나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기에 웬만한 사항은 파악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행적을 함구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 바로 20년 전부터 해온 고아 돕기 사업이다.

지난 7월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성애원 아이들은 정 동문의 70회 고희잔치를 열었다. 이제는 성년이 되어 가장과 주부가 된 졸업생들이 후배 원생들과 상을 차리고, 프로그램을 짜고, 사진을 전시하여 ‘정진구 아빠’에게 깜짝 선물을 했다. 다음은 그 중 한 명이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영어하나만큼은 잘해 두라고 수없이 얘기해 주셨건만 그 때 왜 말을 안 들었는지 후회된다”고 울먹이며 발표한 글의 일부이다.

정진구 아빠!
아빠는 20년 전 후원자로 만났지만 이미 후원자가 아니다.
원에 있는 아이들은 물론 퇴소해 나간 선배들까지 챙기시는 그런 아빠다.
항상 아이들 생각으로 사시는 분이다.
그래서 툭하면 나도 아빠에게 연락을 한다.
그것도 어려운 때면 더욱 더...
슬하에 두 아드님만 있어 딸을 두고 싶으셨다는데
성애원 우리집에는 딸들이 많아 너무너무 좋으시다는 아빠다.
때마다 맛난 거 먹이라고 보내주시고,
모든 행사에 다 참석해 주시고,
이천 가까운 곳에 오셨다고 늦은 밤에도 아들, 딸 보러 오시고,
아프면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바로 보내시고,
아빠 회사에 취직시켜 주시고,
시집갈 땐 손도 잡아 주시고,
아이들 진로 위해 상담해 주시고...
지금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없는 아빠다.
이제 우리의 소원은
아빠가 항상 건강하셔서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셔 주시는 것이다.

‘가슴으로 만난가족’:70회 생일잔치. 성애원 원아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정진구 동문

75년 귀국해 지금까지 스타벅스, CJ 푸드빌 등의 대표이사를 지내고, 베스킨라벤스, 콜드스톤, 파파이스를 국내 1위 브랜드로 성공시키며 번 돈의 절반 이상을 성애원, 서울대병원 어린이 환자 등을 위해 썼다고 한다. 주변에 십 수 년씩 형님동생하며 지내는 기자클럽도 있지만 한 번도 발설한 적이 없다. 아무도 모를 일을 이번에 성애원 원생 중 하나가 블로그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외식산업 전문 CEO의 경영 노하우 들려 달라”고 식사 대접하며 성애원 이야기를 끄집어 내느라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물꼬를 트자, 추억의 보따리는 크기도 하다. 끝없이 이어지는 자식들 자랑과 걱정. 미국에 사는 친 아들들(의사, IT전문가) 걱정은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 애들은 미국식으로 워낙 강하게 키웠다”고 웃어 보인다.

칠순 잔치 끝나고 성애원은 구석방 하나를 치워 ‘아빠의 방’을 마련해 줬다. “요즘은 원생이 줄어 방이 남아도는 모양”이라지만 표정은 흐뭇하다. 언제든 쉬러갈 수 있고 아파 누울 수 있는 방이란다.

정 동문은 최근 버블티 전문점인 ‘보바타임’ 1호점을 삼청동에 오픈했다. LA에서 유명한 건강음료이다. 홍익대 2호점에 이어 국내시장에 안착 후 중국에 진출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아빠’의 성공을 빈다.

김현숙 27회 편집위원 stella1957@naver.com

유효기간 2015년 7월 31일 까지

본 쿠폰 지참시
런치 5% 할인
디너/주말 10% 할인

TODAI Restaurant
Since 1985

세계적인 뷔페 토다이

International Cuisine & Sushi Buffet Restaurant

돌잔치, 고희, 팔순, 기업 세미나 각종 연회 시설완비

토다이는 전세계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제공하여 고객들의 오감을 감동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조미료(MSG)를 사용하지 않은 순수 자연식 메뉴로 고객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있으며,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 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위생관리로 향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고객감동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250여가지의 다국적 메뉴와 고객을 가족같이 여기는 스텝들의
서비스는 고객님들의 식사 경험을 한층 높은 수준으로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08 프리미엄브랜드대상 | 2009 여성소비자 선호브랜드 대상 | 2011 고객사랑 브랜드 大賞 | 2012 고객사랑 브랜드 大賞 | 2012 고객만족 브랜드대상 | 2013 고객사랑 브랜드 大賞 | KS-SQI | 2014 고객사랑 브랜드 大賞

KOREA
토다이 목동점 02-2645-7888 / 명동점 02-3783-4200 / 평촌점 031-384-3684
분당점 031-712-7888 / 중계점 02-3391-7888 / 미아점 02-944-2071 / 반포점 02-579-1985
부산센텀시티점 051-731-7000 / 전주점 063-275-9000 / 예약바이스 (계양점/충주점/영등포점) 1644-9888

U.S.A
Arcadia,CA / Fairfax,VA / Las Vegas,NV/
Waikiki,HI / Westminster,CA / Orange,CA

Singapore

존 뮤어 트레일 대장정 마친 5인의 '부고 조르바'

금년 여름, 20회 동기들은 두 개의 대장정으로 들끓었다. 첫 번째 대장정은 3천~4천 미터 고산준령을 넘나드는 미국 씨에라네바다산맥 종단 트레킹이며, 두 번째 대장정은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출발하여 서울까지의 유라시아 횡단 자전거평화대장정이다.(현재 이병달 20회 동문은 뉴라시아 자전거원정대 팀 닥터로 참여하고 있음.)

'에그! 못 말리는 20회! 그러나, 대단한 20회!' 영어 단어에 geezer라는 단어가 있다. '괴짜 늙은이'라는 뜻이다. 올해 6학년 6반이 되는 20회 동창들에게 '늙은이'라는 표현은 다소 멋쩍지만 이미 지공선사 반열에 올랐으니 geezer라는 표현도 걸맞는 듯 하다.

존 뮤어트레일(John Muir Trail : JMT)은 스미소니언이 선정한 세계 10대 트레일에 꼽히기도 하지만, PCT(Pacific Crest Trail)와 함께 난도가 가장 높은 트레일로 정평이 나 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출발하여 미 본토 최고봉인 휘트니마운틴까지 358km에 달하는 트레일은 4천 미터 이상의 고봉들이 90여개나 되는 야성의 땅이자 빛의 길이다. 일 년에 고작 2천 명 정도에게 입산허가(permit)를 하는 관계로 세계 각국의 트레커들에게는 꿈의 트레킹일 수밖에 없다. 그나마 전체 구간 입산허가는 제한적으로 발급된다.

금년 2월 중순에 신청해서 JMT전체구간 퍼밋을 받은 것은 복권 당첨에 비견된 대박이었다. JMT팀은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김인환, 박수인 부부와 서울에서 날아간 양균석, 김인식, 송리라 등 5명의 동창들(남동3, 여동2)로 구성됐다. 안내 가이드도 없고 짐 옮겨주는 포터도 없으며 숙소도 없는 JMT에서는 입고 먹고 잠자는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짊어져야만 했다. 무게와의 싸움이다. 산에서 필요한 것 외에는 다 버려야했다. 칫솔 손잡이도 반으로 잘라버린다. 버리고 버렸는데도 나중에는 눈썹도 무겁다. 칼로리와의 싸움이다. 정확히 말하면 배고픔과의 싸움이다. 가볍고 열량이 높은 식품, 조리할 때 연료가 적게 드는 라면, 미숫가루 같은 건조식량으로 버텼다. 추위와의 싸움이기도 했다. 한 낮 땡볕이었다가도 높은 산 속은 해만 떨어지면 기온이 뚝 떨어졌다. 곰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인디언 말로 요세미티라는 지명 자체가 곰이다. 거기서는 곰이 주인이고 인간은 단지 지나가는 과객일 뿐이다. 걸을 때도 그렇고 잘 때도 곰을 의식하고 경계해야만 했다. JMT는 종국에는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우리는 11개의 패스(pass)를 넘었다. 고산준령 두서너 개를 거쳐야 겨우 하나의 패스를 넘을 수 있으니 11개의 패스를 넘었다는 것은 3~4천 미터 고산준령을 수도 없이 많이 넘었다는 이야기다. 힘들고 지친 당나귀가 비탈에서 무거운 짐으로 무릎이 꺾이면 끝내 일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한계치에 다다른 배낭의 무게는 우리의 어깨와 등허리를 짓눌렀다. 제5구간에서의 배고픔은 사전에 각오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뱃가죽이 등짝에 와 닿는 듯 했다. JMT 마지막 정점인 휘트니마운틴 정상에 오를 땐 정말 어려웠다. 미 본토 최고봉인 휘트니마운틴은 4,420미터이자 칼바위를 넘어가야 하는 곳. 고산증 증세가 있는 나는, 걷고 쉬고를 반복해야 했으며 고산증 약을 20분 단위로 먹었다. 정상에 다다르자 뜨거운 것이 북받쳐 올랐다. 인환이도, 균석이도 마찬가지였다. 세 남자가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남자들의 진한 눈물은 이런 건가 보다.

씨에라네바다 산맥을 종주하는 JMT는 장엄한 대자연의 서사시이자 교향악이었다. 11개의 패스 하나하나 넘을 때마다 펼쳐지는 광대한 대자연의 파노라마는 어떠한 필설로도 형언할 수 없었다.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이 온 천지에 울려 퍼지는 듯 했다. 그뿐이랴 산정기 그득한 새벽 숲길, 물안개 피어오르는 아침 호수,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 숲길에 들어서면 만나는 사슴 가족들의 선한 눈길, 거대한 바위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저녁노을, 어두워지면 타다닥 타오르는 야영지의 모닥불, 반구형 하늘 가득 촘촘히 박혀있는 찬연한 별들과 은하수와 유성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연의 낭만으로 차있는 산 속에서의 27일간의 야성적인 여정을 어찌 인간세계의 소음과 어지러움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JMT를 다른 사람들에게 권할 마음은 전혀 없다. 단단히 미친 사람들 빼고는. 야성의 영혼을 가진 그리스인 조르바가 던진 말이 생각난다. '산다는 건, 산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오? 가끔은 미칠 줄도 아는 게 바로 삶이오!'

김인식 20회 iamubo@hotmail.com

함께 오래 산 부부일기

오현세(19회)

1 졸업 50주년을 맞는 16회 동문들
2 대상을 수상한 36회 대표들
3 기금전달식을 마친 16,26,36회 대표들

4 인사말하는 허수창 동창회장
5 응원하는 36회
6 36회 '카르멘' 공연
7 동창회 임원단 인사

사진 조용식 35회

8

9

10

11

12

13

8 노익장을 과시하며 포크댄스 공연하는 12회 동문들
9 김일범 24회 동문의 멋진 하모니카 연주
10 13회 소리내 합창단 공연모습
11 참가상을 수상한 16회, 10회, 김종숙수석부회장, 21회 대표(좌부터)
12 단체게임 즐기는 16회 동문들
13 하명용 31회 동문의 색소폰 연주
14 36회 '카르멘' 공연
15 36회 응원단
16 선배들에게 인사하는 42회 동문들
17 스승이자 동문인 17회 유기동(왼쪽 4번째)과 함께한 35회 일동

14

15

16

17

임원회비

회장회비 (200만원)

허수창(14회)

부회장회비 (100만원)

김종숙(16회), 김윤종(16회), 이규성(19회), 이종문(22회), 이효정(30회)

감사회비 (40만원)

채영세(15회)

기별회장회비 (40만원)

임동호(7회), 김석성(8회), 조동암(9회), 이석형(10회), 신승애(11회), 황원섭(12회), 변영일(13회), 정선자(14회), 채영세(15회), 권진세(16회), 이병석(17회), 이석재(19회), 구관서(20회), 김억조(21회), 정윤용(23회), 유성수(25회), 장덕상(30회), 배병철(32회), 김창현(35회), 정순철/홍지숙(36회), 김충우(41회)

상임이사회비 (40만원)

김정환(5회), 김충한(7회), 권재혁(9회), 신혜숙(11회), 김명자(14회), 이덕연(18회), 길병위(19회), 한희승(20회), 이정우(23회) 이강년(25회) , 이성철(36회)

이사회비 (20만원)

김영숙(7회), 송태진(7회), 김규환(9회), 이우영(10회), 전창일(10회), 문광순(12회), 김용언(13회), 변정선(14회), 황혜선(14회), 연향흠(15회), 이정복(15회), 정명자(15회), 진근찬(16회), 김혜령(17회), 이병림(17회), 정인숙(17회), 유재희(18회), 전화숙(18회), 조동란(18회), 이경옥(19회), 임재봉(19회), 무기명(19회), 강은자(20회), 권오준(20회), 김명희(20회), 맹윤호(20회), 박찬범(20회), 송선실(20회), 오삼숙(20회), 윤금호(20회), 이기상(20회), 이병달(20회), 강신한(21회), 김애수(21회), 김미화(21회), 오원석(21회), 김영준(21회), 김혜경(21회), 박경진(22회), 표정자(22회) 김영희(23회), 김윤환(23회), 문인화(23회), 박상욱(23회), 정혜용(23회), 권경임(25회), 노규형(25회), 이 숙(25회), 한영순(25회), 김미라(26회), 정정이(26회), 김진구(27회), 이경희(27회), 이용우(27회), 최병기(29회)

기별분담금

50만원 : 11회, 12회, 34회, 36회, 39회, 41회

100만원 : 14회, 15회, 16왕, 19회, 20회, 21회, 22회, 23회, 25회, 29회, 32회

연회비

1회 : 김선주, 김성진, 오윤용, 윤이동 (4명)

2회 : 김여순, 김정원, 김종희, 남상선, 박효선, 심윤섭, 유병무, 윤경의, 정헌태, 최병옥 (10명)

3회 : 고병록, 김귀준, 김농주, 김명자, 김영이, 김현숙, 김효숙, 나영수, 박종희, 백남수, 안온신, 이양호, 이진영, 이해순, 정용자, 조동원, 조성환, 홍종설 (18명)

4회 : 공주열, 김상익, 김인수, 김인숙, 김탁일, 김한진, 민병은, 서재권, 손종극, 유지한, 윤기호, 이순경, 이정옥, 정득상, 정영호, 정주영, 조한영, 최계숙, 최정숙, 최희주, 한원호, 홍용균 (22명)

5회 : 고은희, 김규배, 김선양, 김태훈, 나금순, 박복출, 박세춘, 신국재, 신현태, 안양찬, 유재범, 이상덕, 이원택, 이재순, 이진복, 이해영, 임공빈, 조영숙 (18명)

6회 : 고재경, 김금자, 김명국, 김옥산, 김진옥, 박순자, 박정숙, 박종오, 성정윤, 안인선, 안정원, 오금석, 오장환, 유송자, 유인숙, 윤석연, 윤정희, 이순원, 이재분, 이종섭, 이종열, 이필순, 이호관, 이호영, 임영숙, 임은경, 장성실, 전인주, 조진호, 최수옥, 한창숙, 현갑주, 홍성일 (33명)

7회 : 고영임, 김영숙, 김 혁, 노순주, 목요상, 민병채, 박명숙, 박성호, 백진갑, 변종서, 선인성, 손영애, 손완주, 손필영, 송태진, 심영보, 안정순, 유영자, 윤애식, 이계승, 이병국, 이병애, 이봉주, 이재원, 이창인, 장기팔, 장동춘, 정건식, 정극수, 정숙경, 정장호, 조성환, 주영숙 (33명)

8회 : 강병연, 구자흥, 권오윤, 김기진, 김석성, 김애린, 김영적, 김응덕, 김의재, 김인애, 박인숙, 박희옥, 서광하, 우종삼, 원군선, 유준영, 이묘범, 이재현, 이창배, 이현영, 이현태, 장동재, 장항경, 조영태, 홍순자 (25명)

9회 : 고화영, 곽준기, 권오학, 권재혁, 김규환, 김락배, 김승진, 김의나, 김정일, 김정진, 김철수, 김태환, 박혜자, 변금진, 신승일, 안대찬, 안장훈, 오명옥, 유재천, 이기준, 이명숙, 이숙경, 이 영, 이영희, 이웅순, 이을섬, 이현순, 전수영, 전정화, 정수진, 조영옥, 최성열, 황광자 (33명)

10회 : 권혁춘, 김덕희, 김민자, 김서환, 김연기, 김재탁, 김주영, 김준화, 김중한, 김진호, 김태무, 김현순, 김효정, 민경선, 박귀희, 박인재, 박임성, 서군자, 손난주, 신범식, 염준세, 원제혁, 유경순, 유초자, 윤덕우, 이규식, 이규진, 이병재, 이선형, 이선호, 이순규, 이신영, 이윤주, 이종구, 이종무, 이준호, 이창배, 이해봉, 장병용, 전성희, 정일자, 조정호, 진명식, 최중서, 한강자, 한규섭, 한은희, 황인수 (48명)

11회 : 강신종, 고용복, 권오경, 김경동, 김명렬, 김신옥, 김영송, 김영자, 김 인, 김항렬, 노성익, 류간성, 류재호, 민완기, 박정명, 박창옥, 박행남, 박희서, 사종식, 신승애, 신혜숙, 심영자, 양단석, 엄창섭, 오세윤, 유성삼, 윤여순, 이계철, 이문구, 이민섭, 이의일, 이인숙, 이정교, 이정란, 이청자, 이황원, 전정혜, 정수길, 정영자, 정지우, 정화자, 조혜옥, 최부원, 최삼수, 최평수, 피세영, 현정자, 홍승표, 황청정 (49명)

12회 고국남, 구양언, 금승호, 김순희, 김영철, 김정수, 김철회, 김희춘, 민수광, 박연용, 박영자, 박혜숙, 배정길, 석은옥, 송영욱, 안진자, 여상철, 오세기, 오세헌, 원병희, 이문영, 이영배, 이영자, 이영훈, 이창대, 임영자, 정경숙, 정광호, 정 철, 조춘제, 조혜자, 최양일, 최영배, 호문익, 황원섭 (35명)

13회 : 강대준, 강 용, 곽정선, 권금자, 김봉환, 김영일, 김영훈, 김용언, 김의섭, 김인자, 김춘심, 나길웅, 문혜자, 박성학, 박영범, 박홍서, 배기풍, 배명식, 백효휘, 변영일, 손 근, 손문익, 우영남, 원관희, 원춘자, 윤상열, 이기재, 이병옥, 이석호, 이순자, 이원호, 이의돈, 이정순, 이해민, 인형무, 장순주, 전 관, 정명복, 정복영, 정성자, 조한익, 조희연, 주청암, 최규순, 최문자, 한용옥, 홍경자 (47명)

14회 : 강숙자, 고문자, 금정호, 김광자, 김명자, 김성자, 김양자, 김인숙, 김진우, 당병준, 마영자, 박인순, 박해영, 방수자, 백태진, 변정선, 서정숙, 성경모, 송기범, 송선희, 안양훈, 엄숙자, 오수자, 오영환, 윤덕중, 이광재, 이규종, 이대경, 이승모, 이창흥, 정선자, 정수웅, 정순화, 조경자, 조완숙, 조중하, 채혜자, 최철견, 최호석, 황혜선 (40명)

15회 : 권태완, 김경애, 김경자, 김성식, 김수자, 김영갑, 김정식, 김홍중, 박기용, 박순영, 방효일, 배정지, 백정현, 손용구, 안신일, 연향흠, 오재돈, 윤미혜, 윤병걸, 이부자, 이용이, 이일훈, 이정복, 이태경, 장규식, 정동진, 정두경, 정명자, 정선영, 조종만, 진창수, 채영세, 최원명, 황동규 (34명)

16회 : 강인자, 고평자, 김경욱, 김두경, 김병만, 김승수, 김영애, 김영종, 김인영, 김정차, 김종건, 김종숙, 김진국, 나경석, 나태균, 류진희, 맹혜열, 박수일, 박정숙, 박정애, 박태근, 변장부, 심춘자, 오동신, 오학래, 우무일, 원경희, 유정숙, 유태욱, 이석영, 이정자, 이정희, 이진구, 정건일, 정영숙, 정진구, 정채영, 진근찬, 채명희, 최인상, 최태호, 허옥희, 황병선, 황정환 (44명)

17회 : 강신호, 강영식, 강창길, 김동우, 김백균, 김성인, 김성호, 김영택, 김영화, 김영희, 김장환, 김정희, 김종애, 김홍기, 남기영, 노창무, 문정자, 문인옥, 박정규, 박충자, 박해우, 백일성, 성기학, 송병길, 송영수, 신길승, 신진우, 심상훈, 엄영섭, 오동건, 오성심, 오성환, 오영숙, 유기동, 유진방, 유창종, 윤현모, 이광성, 이근수, 이금주, 이문연, 이병한, 이성애, 이옥자, 이윤경, 이인애, 이정숙, 이화연, 이효은, 이희림, 임재홍, 임정엽, 장병우, 장정수, 정명애, 정인숙, 채경희, 채희자, 최석찬, 최성철, 최승우, 최정섭, 한순희, 황광익, 황승희 (65명)

18회 : 강사윤, 고명자, 고창숙, 곽정주, 권복순, 권오성, 김경임, 김경희, 김경희 김근호, 김기연, 김상순, 김성환, 김순애,

김오중, 김옥숙, 김요한, 김용배, 김정숙, 김정순, 김종락, 김철수, 김춘영, 김현숙, 김형수, 김혜자, 류현상, 민송자, 박운용, 박의명, 박희복, 변진식, 석인숙, 손경희, 심건섭, 유재희, 윤제철, 이광렬, 이경옥, 이덕연, 이동환, 이두원, 이명섭, 이문규, 이옥자, 이재임, 이현주, 장광준, 장구하, 장귀남, 전동수, 전세욱, 전화숙, 정순덕, 조영도, 조창래, 조항윤, 진영윤, 채영희, 최영혁, 표천근, 한지연, 홍정순, 황병조 (64명)

19회 : 권경순, 김동형, 김명기, 김명복, 김성배, 김윤걸, 김정희, 김중현, 김택환, 남해온, 박종국, 박찬용, 박현숙, 변원일, 서지영, 손향원, 송원기, 신동국, 신태건, 오증근, 유옥자, 윤웅열, 이미춘, 이상분, 이석재, 이승일, 이욱용, 이원강, 이재성, 이재희, 이지영, 임재봉, 장동원, 장혜경, 정영애, 정지영, 최용장, 한문희, 현영욱, 호기영, 황석영 (41명)

20회 : 강석완, 강익순, 강진경, 구관서, 권안식, 권오준, 권형준, 김기성, 김기순, 김동숙, 김명희, 김상현, 김영순, 김영식, 김영옥, 김옥희, 김용민, 김종만, 김종훈, 김진분, 김춘동, 김향숙, 김현수, 남기윤, 민성남, 박동욱, 박상연, 박수향, 박영순, 박정숙, 박준구, 박충남, 성철중, 손선근, 송리라, 송재영, 신은승, 양균석, 염공섭, 오삼숙, 윤금호, 윤기숙, 윤두중, 이경선, 이상영, 이숙범, 이종오, 이찬형, 임광수, 임규도, 정기준, 정은희, 정주식, 조남철, 조문행, 조상근, 조순희, 조영익, 주동선, 차성은, 채성준, 최수경, 최채경, 최행나, 한규현, 한희숙, 홍성혁, 황인규 (68명)

21회 : 강권철, 김미화, 김애수, 김여영, 김영수, 김용빈, 김원근, 김해진, 김효경, 박수영, 송보호, 오구영, 오부근, 원용국, 유달준, 유성무, 유 탁, 윤기정, 이봉존, 이공욱, 이명희, 이서항, 이인숙, 이재현, 이종인, 이지수, 임재복, 전제녀, 조석순, 조성교, 차현덕, 팽경애 (32명)

22회 : 강상구, 강인숙, 권영철, 김성순, 김숙정, 김연숙, 김의식, 김인걸, 김진영, 김태식, 남윤순, 류명재, 문창숙, 민병태, 박정례, 손난수, 손석완, 신인섭, 심영보, 이규호, 이동규, 이수태, 이승하, 이원규, 이종문, 이종성, 이종일, 이주명, 이창순, 이홍숙, 이홍자, 이화숙, 정윤정, 정인준, 정진대, 정찬희, 채순기, 최덕철, 최도성, 최병숙, 표정자, 한순일, 한승훈, 한준희, 허무정 (45명)

23회 : 강광호, 권옥귀, 김순호, 김태흥, 김하준, 맹형열, 문순자, 문인화, 민경호, 배환기, 서순경, 신인용, 오광봉, 유 라, 윤명자, 이덕임, 이명자, 이석하, 이안기, 이정우, 이주진, 이학규, 이현식, 정재희, 정태영, 최경진 (26명)

24회 : 강영숙, 강준원, 구본현, 김기황, 김경애, 김명한, 김창래, 김화윤, 류병일, 문상영, 박명숙, 박성영, 박정은, 선성규, 유병옥, 유순옥, 이기찬, 이성범, 이인숙, 이인유, 정경훈, 조규식, 최명원, 최영귀, 최준표, 한주숙, 허동욱 (27명)

25회 : 강윤창, 강태숙, 권경임, 김동성, 김보옥, 김정건, 김종만, 김주묵, 김창동, 김태영, 노규형, 배원종, 변진호, 안희태, 양일승, 우순옥, 우제령, 이성일, 이수자, 이영규, 이영무, 이영수, 이완규, 이원호, 이종렬, 이형권, 임용택, 임우성, 임흥선, 조순자, 조현주, 최일현, 한영순, 홍성태, 황건중 (35명)

26회 : 권오용, 김명희, 김문성, 김우정, 김원일, 김은미, 김종욱, 김종희, 김태영, 김학운, 신미자, 연인자, 오영준, 유양순, 이문철, 이성연, 전성덕, 지승룡, 차경호, 현숙희 (20명)

27회 : 심상인, 안정애, 원영신 이달상, 이용우, 임용빈, 전영애, 정세교, 한현우, 황선주 (10명)

28회 : 김동규, 김동환, 김영애, 김윤정, 김재숙, 김종철, 손경만, 송예빈, 연기석, 유재영, 이영호, 이영희, 이운복, 이은종, 이정복, 장혜숙, 정성호, 조영수, 지명숙, 채동훈, 최해천, 현운옥 (22명)

29회 : 고광덕, 곽재엽, 김승택, 김종춘, 김판규, 이부영, 이강순, 이정준, 정병덕, 하은주, 허석자, 현승억 (12명)

30회 : 김영춘, 김정훈, 김학승, 박귀희, 박소애, 박재웅, 손승이, 신동미, 신재현, 양정임, 이병국, 이인영, 장덕상, 장영석, 장동권 (15명)

31회 : 김문규, 서중원, 이근준, 이영일, 임형기, 임혜진, 정권천, 정시현, 조창식, 황기복, 황달연 (11명)

32회 : 김영진, 김일붕, 김정애, 김희정, 나기훈, 박무선, 배병철, 성대중, 안성진, 이인행, 임영희, 주성택, 최경환, 최흥병 (14명)

33회 : 김명희, 김미혜, 김영례, 김효종, 김희권, 이희동, 지동회, 지헌호 (8명)

34회 : 강구창, 김미미, 이원중, 정연석, 정정화, 최선주 (6명)

35회 : 김옥란, 김 찬, 김창현, 이두섭, 전중구 (5명)

36회 : 배병일, 윤종서, 정순철, 홍성표, 홍지숙 (5명)

37회 : 김영대, 박광연, 박홍진, 오현주, 윤영선, 이선경, 이형조, 정철우, 한경혜, 한대영 (10명)

38회 : 박태상, 오인환 (2명)

39회 : 이병엽, 최선옥 (2명)

40회 : 김용원 (1명)

41회 : 이해범, 최상희 (2명)

42회 : 김세환, 김형찬, 김희순, 손우성, 오승민 (5명)

57회 : 윤청미 (1명)

무기명 : 72명

납부인원 : 1,119명

05회 회장 **유영상**

6월 8일에 광화문 시민회관 앞에서 모여 근처 식당에서 샤브샤브를 먹으며 그간의 소식을 주고받았다. 이날 점심 값은 이상영 동문이 내주었다. 6월 29일 워킹데이엔 잠실 롯데호텔 1층 대합실에서 만나 석촌호수둘레 산책길을 걸었다.

7월 16일엔 남녀 10명의 동문이 다시 모여 점심을 먹었으며, 20일 워킹데이엔 10시에 옥수역에서 만나 연꽃축제를 하고 있는 양수리로 갔다.

8월 20일엔 12시에 KT에서 남녀 8명이 모여 점심을 먹으며 건강관리 잘 하자고 다짐했다.

06회 회장 **이호관**

남자동기들 정기모임을 매월 6일 열린다. 매월 4주 금요일에 하는 산행을 서울대공원 산책로 일주로 대신했다. 7월 14일 여자 동문 20여 명이 동창회관에 모여 졸업 60주년에 대한 행사를 논의하고 수고하는 직원들을 격려해 주었다. 8월 21일에는 김정순 동문의 산수연이 호암교수회관에서 있어 여러 동기들이 참석해 축하해 주었다. 김동문은 서울대의대 보건대학원장을 역임하고 퇴직한 후에는 서예, 도예, 수채화, 목각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며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그간의 작품을 모아 '물처럼 바람처럼' 이라는 50페이지에 이르는 사진집도 발간했다.

07회 회장 **임동호**

8월 19일 동기 14명이 모여 간사회를 가졌다. 금년 가을여행을 10월 16일(목)에 가기로 하고, 송년회는 12월 8일(월)에 열기로 결정했다. 내년 졸업 60주년 행사는 5월 10일 선농축전에 맞춰 2박 3일간의 설악산 여행을 다녀온 후 선농축전에 참석한 다음 호텔급 음식점에서 만찬회를 갖기로 했다. 회비는 5만원이 될 것이다.

08회 회장 **김석성**

6월 4일 산악회 회원 12명이 서울대공원에 모여 외곽도로를 산책했다. 모처럼 김의재 동기가 참석해 더욱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또 7월 2일은 하절기라 서울대공원 산책 대신, 산악회원 12명은 과천에서 점심모임을 했다.

09회 회장 **조동암**

입학 60주년을 맞이한 9회는 그동안 졸업 30주년, 40주년, 50주년, 그리고 2012년 졸업 55주년 기념행사를 모두 치렀다. 하지만 입학년도를 기준한 기념행사는 올해에 처음 가졌다. 지난 5월 21~22일 해외동문을 포함한 44명의 남녀동문들이 춘천 세종호텔에서 입학 60주년 가든파티를 열었고 2일 동안의 낮 시간에는 경춘지방의 명승지와 유적지, 박물관 등을 느긋하게 둘러보았다.

첫날 저녁에는 춘천 시가지가 내려다 보이는 석양의 경관 속에서 와인을 곁들인 뷔페를 들면서 9회 동창회가 자체 제작한 60년 발자취를 엮은 40분짜리 슬라이드 패키지 〈찬란한 시절〉을 함께 감상했다. 한편 인터넷 동호회 《구인회》는 해마다 봄 가을에 국내외 여행을 다니는데 올해엔 9월 22~25일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의 서안, 진시황릉, 병마용 관광을 다녀오기로 했다.

10회 회장 **이석형**

6월 10일 동창회관 선농홀에서 하계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47명의 동문이 모여 김철규 동문의 여름철 노인건강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6월 산행은 6월 27일 20여 동문이 양수리 세미원으로 다녀오는 것으로 대신했다. 세미원 연꽃이 막 피어날 때여서 눈이 시리도록 감상하고 사진기에 아름다움을 담아왔다.

한편 5월 21~24일까지 35명(여자18, 남자17)이 대만여행을 다녀왔다. 장개석 총통 기념관인 중정관, 박물관, 화련의 태로각 계곡 등을 관광했다.

11회 회장 **신승애**

5월 21일 인사회원들이 화성행궁으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우선 장안문 앞에서 만나 화홍문 근처에서 갈비탕 점심을 먹고, 산책 삼아 연무대까지 걸었다. 연무대에서 관광열차를 타고 화성행궁 뒷산까지 가서 행궁으로 걸어가 내부를 둘러보고 오후 3시부터 시연하는 무예 24기 시범공연을 관람했다. 시연이 끝난 뒤 인근 카페에서 담소 후 헤어졌다.

12회 회장 **황원섭**

지난 7월 13일, 매월 만나 걷기를 함께하는 등산모임 동기들 25명이 서울 강남의 선정능을 산책했다.
점심회식을 하고 헤어졌다.

13회 회장 **변영일**

흙뫼회 228차 산행을 8월 23일 오지의 섬 교동도 화개산으로 다녀왔다.

모두 31명이 참가한 이날은 비도 내리지 않고 그리 덥지도 않아 등반하기 딱 좋은 날씨였다. 절반은 교동도 제방길을 걷고 교동 향교, 화개산, 교동읍성도 둘러봤다. 교동 향교에서는 해설사의 설명을 들었다. 7월 1일 교동대교가 개통되어 편하게 오갈 수 있었으며 귀경길에는 전등사도 들렀다. 한편 흙뫼회 제 227차 산행은 18명의 회원이 남한산성을 다녀 왔다. 3시간 가량 산성의 성곽을 돌고 나서 점심으로 효종갱(曉鐘羹)을 먹고 즐거운 산행을 마쳤다.

14회

회장 **정선자**

14회 스포츠댄스팀은 매주 수요일마다 모임을 갖는데 지난 6월 22일에는 인천 차이나타운과 월미도, 8월 6일에는 천안으로 야유회를 다녀왔다. 산악회는 6월에는 청계산 정동진길을 산행했으며 7월과 8월에는 도봉산을 다녀왔다. 필레오 합창단과 아띠누리 기악합주단은 8월 한 달은 쉬고 9월부터 매 2주마다 동창회관에 모여 연습하고 있다. 당구모임과 기우회도 매월 모여 친목과 실력을 다지고 있다. 한편 14회 동창회는 23회 선농축전과 2014년도 상반기 총회건으로 8월 27일 공덕동 14회 동창회관에서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15회

회장 **채영세**

일오산악회는 6월 8일 38명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을 찾았다. 7월 13일에는 25명이 청계산 계곡에서 더위를 식혔다. 산수회는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데 6월에는 15명이 대공원에서 청계산으로, 7월 1일에는 강화도 혈구산으로 등반을 다녀왔다. 또 문안회는 6월과 7월 시골집에서 20여 회원이 모였으며 삼목회는 6월, 8월 18명이 모였다. 그 외 관솔회. 일오당구회. 기우회가 활발한 모임을 갖고 있다.

16회

회장 **박상규**

졸업 5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4월 '3박 4일' 일본여행에 이어, 5월 26~27일에는 35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지리산둘레길 3코스를 1박 2일 동안 걸었다. 또 7월 27일에는 25명의 동문이 용문산 산행과 용문계곡에서 하루를 즐겼다.

16회(왕)

회장 **권진세**

지난 5월 23일 도봉산에 올랐다. 은석암까지 가서 사방에 모셔져 있는 돌부처들에도 무사한 산행을 감사했다. 지난번 번개 산행시 멸치요리를 맛보지 못했다고 튀김을 준비해온 만선에게 감사한다.

18회 회장 **이두원**

지난 7월 24일 여유회 분당 걷기모임 친구들이 남한산성 문화탐방을 다녀왔다. 그날은 마침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축하하는 행사가 있었다. 30여 명의 친구들은 정강현 여유회 회장에게서 남한산성에 얽힌 역사 강의를 들으며 수어장대까지 올랐다. 여유회 회장의 설명을 함께 들은 행성관리인은 "우리 안내 도우미보다 월등하다"고 감탄.

19회 회장 **이석재**

19회의 사대부고 입학년도는 1964년. 19회 가 입학한지 만 50년 되는 해이므로 올해는 모임을 좀 더 활발히 갖자고 연초에 뜻을 모았다. 일구회모임, 바둑모임, 등산모임, 음악듣기 모임, 당구모임 등 기존 모임들을 활성화하는 외에 단체 해외여행도 추진했다. 5월 초에 10여 명이 북유럽 여행을 다녀온데 이어 5월 말에는 20명이 베트남 여행을 하고 돌아왔다. 하반기에도 크고 작은 각종 모임을 더욱 활성화하며 반세기에 걸쳐 이어온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할 계획이다.

20회 회장 **구관서**

20당구회에서는 지난 6월 8일 19명의 동문들이 실력을 겨뤘다. 3구와 4구로 나누어 게임을 진행했으며 3구 우승자는 권병우, 4구 우승자는 이상영 동문이 차지했다. 한편 20회 동문 5명(김인식, 양균석, 김인환, 송리라, 박수인)은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계곡에서 시에라네바다 산맥을 가로질러 미국 본토 최고봉인 휘트니(Mt. Whitney)산까지 걷는 358km의 John Muir Trail 트레킹에 도전하고자 지난 7월 28일 장도에 올랐다. 거리상으로는 걸을만 하지만 텐트와 식량까지 지고 고도 2,500~4,400m의 고개 10개를 넘어야 하는 만만찮은 길로써 약 3주간에 걸쳐 트레킹을 다녀왔다.

22회 회장 **허무정**

6월 1일. 26명의 친구들은 문경새재를 다녀왔다. 문경새재의 3관문에서 시작하여 1관문으로 향하는 내리막 코스를 택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과거길이다. 1관문 도착 후 점심식사를 한 후 가까운 고모산성에 갔다. 몇 친구는 고적한 성곽 길을, 몇 친구는 토끼들이 다니는 좁은 길로 왕건이 피신해 갔다는 토끼비리를 걸었다. 상경 후 뒷풀이하며 가을 수학여행에 대해 의논했다.

한편 매년 여름철에 한 번씩 가는 무이회 계곡 피서산행은 북한산성 삼천리골로 다녀왔다.

21회

회장 **김억조**

올해 졸업 45주년을 맞아 6월 12~17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라오스를 다녀왔다.

버림받은 몽족들이 사는 마을을 방문해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해 주니 옛날 6.25 전쟁 후의 "김미 쪼꼬렛" 시절이 새삼 머리에 떠올랐다. 루앙프라방에서 꽝시폭포 등을 감상하고 방비엥에서는 수중동굴탐험, 카약체험, 유격훈련 등으로 잠시 나이를 잊었다.

23회

회장 **정윤용 · 이정우**

7월 26~30일까지 16명이 백두산을 다녀왔다. 고산화원, 금강대협곡, 호산장성, 백두산 천지와 압록강을 비롯해 고구려 유적지인 광개토왕비, 장수왕릉 등을 둘러봤다.

한편 6월 28일에 있은 총동 기별바둑대회 준결승대국에서 6명이 우승해 결승에 진출했고, 매월 넷째 일요일에 진행되는 등산모임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한산성, 다산둘레길을 다녀왔다. 건강걷기모임은 중앙박물관, 비원, 종묘, 장충공원길을 걸었다.

24회

회장 **홍성주**

24회는 일 년에 두 번 24일에 모임을 갖는다. 6월 24일 30여 명의 동기들이 압구정동 식당에 모여 저녁모임을 했다.

25회

회장 **유성수**

지난 6월 14일 32명의 동기가 모여 '만원의 행복'이란 슬로건을 내세우고 탁구채를 만져보지도 않았던 친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구성한 탁구대회를 열었다. 남녀 단식은 실력대로 겨루고, 복식은 복불복으로 팀을 뽑아서 경기를 하고, 이기면 다시 복불복으로 새 팀을 짜서 겨루는, 실력 보다는 운이 좋은 친구가 우승 할 수 있는 복식경기를 치렀다.

아울러 남녀 단식 우승 후보자를 배팅하여 둘 다 맞춘 친구에게도 상품을 주어 모두가 즐길수 있는 탁구대회였다.

26회

회장 **차경호**

7월 19일 신촌 늘푸른교회에서 열린 26회 신우회 창립 11주년 기

념예배에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정환 목사의 "삶에는 뜻이 있다"라는 설교와 22회 홍광희 목사의 간증, 축가로 진행됐다. 한편, 9월 19일부터 2박 3일간 졸업 40주년기념 추억의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갈 예정이다.

28회 회장 **서혜경**

7월 12일 걷기 모임인 올래갈래에서는 동기 25명이 모여 40년 전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었던 설악산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비록 하루 일정이었지만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추억의 장소였다.

30회 회장 **장덕상**

7월 6일. 32회가 주관한 30기수 대전 계룡산 연합산행에 24명의 동기들이 참석, 최다 참석 인원으로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였다. 한편 7월 30일~8월 2일까지 30회의 산악고수인 4명(김동흡 김대진 최창동 박귀희)이 26회 신용경 선배와 함께 작년 일본 북알프스 등

정에 이어 일본 남알프스 4개봉을 완주하고 귀국했다.

31회 회장 **조택하**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정경금 동기가 오랜만에 귀국해, 6월 8일 정우순 동기가 운영하는 압구정동 호화반점에 모였다. 이번 모임은 여동들끼리 모였다.

32회 회장 **배병철**

7월 6일. 32회의 주관으로 열린 30회 이후 기수의 연합산행에 65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계룡산의 갑사~동학사 코스에서 안전하게 진행됐다. 30회부터 40회까지 한주기(10년)를 마치고 2년 전 30회부터 다시 시작한 30회 이후기수 연합산행은 이제 30기수를 넘어 40기수로 순조롭게 이어질 것이다. 다음 연합산행은 12월 첫 번째 일요일 도봉산 포대능선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33회

회장 **한상만 · 윤희정**

매년 6월에 떠나는 추억여행을 6월 21~22일에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숲속의 아침" 으로 다녀왔다.

총 22명이 참석하여 21일 오전 10시 강변역에서 출발, 두물머리에 들른 후 막국수집에서 점심을 먹은 후, "숲속의 아침"에 도착했다. 짐을 풀고 남동들은 간단하게 족구로 몸을 푼 뒤, 황정희 동기가 진행한 힐링강의를 들었다. 비가 와서 캠프 파이어는 하지 못했다. 양평에서 손만두 점심을 먹고 서울로 이동했다.

35회

회장 **김창현**

소모임 활성화로 정기모임을 강화 중이다. 7월 18일에는 미국에서 귀국한 김경혜 동기와 16명의 친구들이 회식을 했다. 8월 9일

에는 전경선 동기가 강북지역 친구들을 위한 번개모임을 개최해 16명이 상계동 식당에서 모였다.

36회

회장 **정순철 · 홍지숙**

6월 28일 토요일, 반년회란 이름으로 송암 스페이스센터에서 모임을 가졌다. 연초 졸업 3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계획했던 이번 반년회는 요즘 부쩍 활성화된 36짱 밴드를 통해 많은 친구들을 한자리로 모았다.

72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앞으로의 행사안내 및 평생회비, 찬조금 협조 등을 논의했다. 7월 31~8월 3일에는 36산악회에서 주관하는 중국 화산 해외원정 산행에 올랐다

13명의 산악회원들이 북봉-동봉-서봉(2,080M)-남봉정상(2,154M)까지 함께 오르며 졸업30주년을 기념했다.

37회

회장 **윤영선**

6월 27일 신사동에서 15명이 모여 6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2차는 잠원 한강 공원으로 이동해 제철동문이 준비해 온 맥주와 치킨, 과일, 안주를 즐겼다.

걷사모 모임은 6월에는 한강 고수부지와 서울숲을 10여 명의 동기가 걸은 후에 가벼운 뒷풀이를 했고, 8월에는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산 둘레길 1,2코스를 걸었다.

한편 6월 14일에는 13명이 양평나루께 축제공원에서 개최된 양평 이봉주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완주했다.

41회

회장 **김충우**

졸업 25주년을 맞은 41회는 46명의 동문이 우이령길 산행을 했다.

42회

회장 **한승주**

10월 18일 제13회 선농가족 체육대회를 앞두고 7월 3일 강남의 한 식당에서 각 기별 회장단 모임을 열어 선배님들의 조언을 들었다. 8월 21일에는 동창회관 선농홀에서 김형찬 체육대회준비위원

장을 중심으로 30여 명의 준비위원이 회의했다.

43회

회장 **목호찬 · 이정실**

6월부터 8월까지 4회에 걸쳐 번개모임과 여름 정기모임을 가졌다. 5월 29일엔 테라스 번개, 6월 28일엔 계룡대 번개, 7월 24일에는 빵떡 번개, 7월 30일에는 윤강 번개라는 이름의 모임을 가졌다. 8월 8일에는 삼전포차에서 여름 정기모임을 가졌다.

44회

회장 **이상욱**

지난 5월, 한인석이 상임지휘자로 있는 광주시 혼성합창단 정기연주회에 친구들이 참석해 축하해 줬다. 6월에는 청계산 자락에 자리잡은 한 음식점에서 야유회를 가졌다. 이번 야유회에는 가족들도 참석해 더욱 뜻 깊은 자리였다. 식사 후 근처 찻집으로 옮긴 2차 모임에서 향후 선농축전이나 체육대회에 더 많은 가족이 참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동기 골프모임이 조직되어 2달에 한 번씩 운동을 하기로 했다.

입학 60주년 기념여행으로 '추억 만들기'

1954년 3월. 청운의 꿈을 품고 모교의 교문에 들어선지 어언 60년, 환갑의 세월이 흘렀다. 특차로 선발된, 명문 고교생으로 만난 우리 9회 동문들은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면서 많은 성취를 이루었다. 그동안 졸업 50주년(2007년)과 졸업 55주년(2012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뜻 깊게 가진 바 있다. 3년 후 졸업 60주년(2017년)을 맞게 되지만, 그 사이 한 번 더 큰 모임을 갖자는 뜻을 모아 입학년도를 기준한 60주년을 특별히 기념하는 행사를 갖기로 했다. 60년 오랜 세월을 함께 해 온 44명의 정다운 친구들이 1박 2일의 일정 동안 조그마한 사고도 없이 잘 다녀온 것에 감사드린다. 먼저 여행지를 경기도와 강원도로 잡고 생각해 보니 대학생들의 미팅 장소로 유명한 경춘가도를 따라가면서 찾아보기로 했다. 구인회에서 배운 실력을 총동원해 경춘가도 주변의 볼거리를 모두 검색해 찾아낸 곳이 이화원, 김유정문학관, 몽골문화촌이다. 춘천답사를 2회, 몽골문화촌 답사 1회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5월 21일, 두 사람이 불참하고 44명이 출발. 나이 지긋한 소년 소녀를 가득 태우고 한 시간 여를 달려 첫 목적지 이화원에 도착. 이화원은 화합, 평화, 조화를 추구하는 테마수목원으로'서로 다른 둘이 만나 조화를 이루어 더 큰 발전을 이룬다'는 취지로 조성됐다. 동양과 서양, 수도권과 지방, 경상도와 전라도의 상징적인 나무를 심어 놓았다. 시원한 연잎차 한 잔을 마시고 다시 출발. 한 시간을 달려 춘천 남부 막국수집에 도착해 수육, 모듬전, 막국수를 든든하게 먹은 후, 김유정문학관에 도착했다. 이곳에서는 그의 소설을 형상화한 재미있는 조성물들과 사진도 찍고, 그의 생애와 작품을 전시한 전시관도 둘러보고 아름다운 정자와 나무토막 의자에 앉아 평화롭고 고즈넉한 분위기도 만끽한 후 오늘의 숙소인 춘천 세종호텔로 향했다. 3시 40분쯤 세종호텔에 도착하니 우리를 반기고 있는 "서울사대부고 9회 입학 60주년 기념 동창회"라는 프랭카드가 눈에 들어온다. 오후 6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잔디정원에는 우리들의 만찬을 위해 타원형 테이블이 멋있게 놓여 있고 한 옆에는 돼지 바베큐 통이 천천히 돌아가고 푸짐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나오라는 방송도 없었는데 모두 나와 자기가 뽑은 좌석표에 따라 자리 잡고 이태식 동문이 준비해 온 귀에 익은 클래식, 우리 가곡 등을 들으며 우아한 만찬을 즐겼다. 생각할수록 가슴 아픈 세월호 사건으로 화려한 옷을 삼가기로 하여 평상복으로 참여했지만 아름다운 정원과 저녁노을은 우아한 분위기를 한껏 느끼게 했다. 당초 생각했던 캠프파이어는 생략했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슬라이드 쇼였다". 김태환 동문이 몸살까지 앓으면서 만든 역작이다. '찬란한 시절', '동창회 발자취', '우리들의 만남과 우정' 40여 분 동안 우리는 60년 전 입학 때 모습부터 우리 고교 때의 모습과 졸업 후의 우리들 생활을 보면서 즐거운 회상에 잠겼다. 이남영, 유재천, 이태식 동문의 유익한 이야기도 듣고 황광자 동문의 시낭송 감상. 춤과 노래는 삼가기로 했으므로 조금은 아쉬운 마음으로 숙소로 들어갔다. 다음날 10시 소양강 댐으로 향했다. 다목적댐 주변 산책을 마치고 마지막 목적지인 몽골문화촌으로 출발했다. 이곳 문화촌에는 몽골역사관, 생태관, 어린이 체험관이 있고 몽골주택인 게르도 있었다. 우리는 전통음악, 전통무용, 써커스, 전통의상쇼를 보았고 원나라 징키스칸의 후예다운 멋진 마상공연도 보았다.오후 7시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서울에 도착. 입학 6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헤어졌다.

이현순 9회 여자동창회장 hsoon17@hanmail.net

“8백 명 동기들, 하나 되어 ‘종심’해요”

나이가 고희에 이르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도 크게 어긋남이 없을 것이라 했다. 우리 16회는 졸업 50주년을 맞아 머리를 맞댄 끝에 단체여행 3부작을 기획했다. 일본 규슈여행, 지리산 둘레길, 그리고 차마고도 트레킹이다. 일본 규슈 여행과 지리산 여행은 이미 다녀왔고 이제 대망의 차마고도 트레킹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해발 5596m의 차마고도. 우리가 가려는 호도협곡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협곡 중의 하나이며 상류와 하류의 낙차가 170m나 된다고 하니 벌써부터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된다.

졸업 50주년 기획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결국 국내외 여행으로 정해지는 걸 보면 역시 여행을 통한 추억이 오래가기 때문이 아닐까? 문득 부고 때 수학여행의 기억이 떠오른다.

1962년. 2학년 5반 담임선생님은 국어담당 이병무 선생님이었다. 그런데 대체로 아이들은 선생님을 탐탁치 않아 했다. 한마디로 인기는 제로였다. 우리 반이 성적이 좋지 않은 것도 선생님 탓, 극성맞고 말썽 많은 것도 선생님 탓이었다. 별명조차 민망하게도 ‘X개’라고 붙여 놓고 서슴없이 불러대기도 했다.

10월 말, 수학여행 가기 며칠 전, 쉬는 시간 내 주변의 아이들 대여섯이 머리를 맞대고 앉았다. 장난꾸러기 K가 먼저 제안했다.

“우리 여행 가서 X개 골탕 좀 먹여줄까?”

나는 찬성하지 않았지만 반대도 할 수 없었다. 다른 아이들이 손뼉까지 치며 적극 찬성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수학여행은 3년간의 고등학교 시절 중 하이라이트라 할 만 하였다. 생전 처음으로 집을 떠나 어렵사리 기차여행을 하게 된 나 역시 적지 아니 들떠 있었다.

선생님을 골탕 먹이려는 계획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내 안에 그런 악동기질이 있는 줄은 스스로도 미처 깨닫지 못한 사실이었다.

기차에 올라 우선 선생님이 앉아 계신 자리를 확인했다. 어디쯤 와 있는지는 기억에 없다. 기차가 터널로 진입했다. 열차 안이 한줄기 불빛도 없이 갑자기 캄캄해졌다. 아이들은 준비한 담요를 가지고 살금살금 선생님께 다가가 머리에 뒤집어 씌웠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선생님 머리를 한 대씩 때리고 재빨리 담요를 거두어 줄행랑을 쳤다. 아마 적어도 대여섯 대는 맞으셨을 것이다. 터널을 지나 다시 환해졌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모두 시치미를 떼고 자는 척 하고 앉아 있었다. 가슴이 콩닥 콩닥 뛰었다. 5분, 10분, 30분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여행하는 내내 가슴을 졸였다. 혹시 정학이라도 맞게 되는 건 아닐까 하고. 하지만 딱히 혼쭐 난 기억이 없는 것을 보면 마음 착한 선생님께서는 허허 웃고 그냥 넘어가신 것 같았다. 생각해보면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옛 정서가 시퍼렇게 살아 있던 시대에 우리들의 일탈은 그야말로 패륜에 가까운 일이었는데도 말이다.

그날 일이 두고두고 죄송스러웠다. 훗날 대학교수로 정년퇴임하시는 날 찾아뵙고 마음속으로 사죄드렸다.

16회는 다른 기수와 달리 졸업생이 8백 명을 넘는다.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라 사범학교가 폐지되고 교육대학이 설립되기 직전, 학기의 공백이 생겨 한 학년 학생 4백 여 명이 공중에 떠버렸다. 학교 이름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 때부터 2년 동안이었던가? 사대부고 분교가 생기게 된 배경이다. 한결같은 동문인데도 출신 고등학교를 말해야 할 때 마다 앞뒤를 따지면 말이 막히고 장시간 설명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곤란한 입장이 되곤 했다 한다. 초기에는 16회가 모임을 여러 번 같이 하여 ‘하나 된 16회’를 모색했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거리감이 생겼다. 최근에는 1년에 한 번 선농축전에 참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아쉽다.

이제 70세가 되었다. 從心所慾不踰矩(종심소욕불유구). 모두 내려놓고,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 저녁 노을을 향해 가는 일만 남았다.

이성희 16회 44sunghee@naver.com

고양파주지회

회장 **이종오 · 20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방한해 지도자의 참모습을 실천하셨고,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가는 가을의 문턱에서 고양파주지회 222모임을 일산에서 가졌다. 이날도 어김없이 23명의 동문이 정담을 나누었으며, 3차까지 어울려 세월호의 아픔을 잠시 잊었다. 매년 이맘때 영양탕으로 우리 동문에게 활력을 주기 위해 추가 경비를 부담하는 이종오 회장, 조영익20회, 김영철24회 동문께 새삼 감사드린다. 파주에서 약국을 경영하던 송찬32회 동문이 7월말 제주시로 둥지를 옮겼다.

도서반동문회

회장 **홍승엽 · 23회**

지난 5월 31일(토)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전설이 깃든 아차산에서 21명의 선후배가 춘계산행을 가졌다. 추계산행은 10월 18일(토)에 인왕산과 수성동, 백사실 계곡으로 예정되어 있다. cafe.daum.net/bugo-library

럭비OB회

회장 **유기동 · 17회**

2014년 전국체전 서울 예선에서 패배한 모교가 제25회 대통령기 전국대회에서 대전 명석고를 격파하고 우승했다. 제41회 문화관광부대회는 양정고에 석패해 3위에 머물렀다. 제41회 문화관광부대회에서는 배재고에 역전패하여 3위를 차지, 내년에 다시 도전하게 됐다. 한편 모교럭비부에 많은 지원과 충언을 하셨던 10회 오기복 동문이 8월 초순경 지병으로 별세하시어 회원들은 삼가 조의를 표했다.럭비동문회는 지속적인 모교 지원을 위해 10월 중순경 모교에서 선 · 후배가 모여 친선경기 겸 총회를 열기로 했다.

방송반

회장 **김성룡 · 27회**

5월 24~25일까지 1박 2일 동안 방송반 사진 촬영 모임이 47회 강민구 동문이 운영하는 강화군 삼산면 소재 그린로즈 펜션에서 있었다. 사진에 관심이 많은 동문 9명이 참가한 가운데 구름 낀 민머루 해변과 어류정항 부근에서 사진 촬영이 이루어졌다. 적극적인 동문은 전등사와 보문사 등지를 돌아 사진 촬영을 하는 열정을 보여주었으며 모임이 끝난 뒤에도 적석사와 고려산 주변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8월 8~9일까지 1박 2일 동안 31회 하명용 동문 주관으로 청평 호반에서 여름 파워보트 및 제트 스키 투어링이 있었다. 15명의 동문이 참가했으며 자녀들을 데리고 참여한 동문들도 있어 분위기가 좋았다.

저녁식사 후 강 건너 개인 선착장에 마련된 여흥 장소로 이동해 하명용 동문의 색소폰 연주를 감상하고, 노래자랑을 했다.

후원을 해준 28회 서호근 동문과 31회 하명용 동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부산지회

회장 **권옥귀 · 23회**

6월 24일 청사포 횟집에서 19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정기 이사회

를 개최했다.

이날 가을 동문의 날에 대한 안건 토의와 함께 부산 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게 된 38회 배형원동문이 참석해 인사를 나눴다.

산악회

회장 **양일승 · 25회**

총동문산악회가 찾아갔던 6월의 가평 명지산, 7월의 괴산 막장봉, 8월의 단양 황정산은 산사람들 사이에서는 산행의 매력이 제법 알려진 곳이었지만 우리 산악회에서는 그 동안 잘 다니지 않았던 산들이었다. 이들 산을 오르며 여름산행의 재미와 더불어 급경사 너덜길에서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느끼기도 했다.

다음 가을산행 때는 홍천 백우산, 단양 도솔봉, 철원 복계산을 찾을 예정이다. 그리고, 10월 11~14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제4차 해외원정산행을 138명의 동문들이 참여한 가운데 중국 산동성의 태산과 노산으로 갈 예정이다.

서울사대부고 연합합창단

단장 **조종만 · 15회**

지난 7월 26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보훈처 주최로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 평화기념 음악회'가 열렸다.

전국 13개 학교의 남성 합창단원과 서울사대부고 연합합창단 남자단원들도 참가해 멋진 하모니를 뽐냈다. 주최 측의 찬사를 받았으며, 내년에는 좀 더 근사한 공연을 하자고 다른 학교들과 약속도 했다.

우리 연합합창단은 11월 1일에 있을 "2014 동문음악축제"에서도 동문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그때 부를 노래들을 방학도 없이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선경회

회장 **이정복 · 15회**

지난 6월 19일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완 원장의 "2014년 부동산 전망 및 창조적 자산관리 전략"이란 강연으로 조찬포럼의 시간을 가졌다. 조찬포럼에는 매번 60여 명의 선후배가 자리를 함께하고 있으며, 이후 친목도모 등 다양한 소모임의 시간을 갖고 있다.

지난 8월 18일에는 각 기수별 간사 및 신입회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선경회의 향후 발전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고, 각 회원들의 경영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선경회에서는 매년 분기별 셋째주 목요일에 조찬포럼을 갖고 있다. 선후배님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3분기 9월 조찬포럼은 선녀회와 공동주최했다.

선경회 문의 : 총무 이경진 (29회. 010-6283-0909)조찬포럼 : 매년 3, 6, 9, 12월(송년만찬) 셋째주 목요일 오전 7시 진행

선녀회

회장 **김수자 · 15회**

126차 선농여성전문인회 정기모임을 6월 12일(목) 코리아나 호텔에서 가졌다. 이날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논설위원실장을 강사로 모시고 "우리나라 경제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었다.

또 영원복합문화센터에서는 정경숙 12회 회원이 서울의 역사에 대한 강연을 했고, 이화장(동숭동 소재)에서 초대 이승만대통령의 며느리인 조혜자 여사로부터 이화장의 변화와 관리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경청했다.

2014년은 특히 선농여성전문인회가 창립한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10월 10일(금) 오후 6시에 동창회관 선농홀에서 은사님과 전 · 현 총동창회장을 모시고 기념행사를 할 예정이다. 선농여성전문인회는 모교를 졸업한 여성전문인들의 모임으로 관심 있는 동창 본인이나 기별 동창회장의 지속적인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총무:임희규 20회. 연락처 010-6370-1025)

선농과학기술인회

회장 **이기준 · 9회**

6월 25일 포스코 권오준 회장(20회)의 주선으로 모교 2학년 영재과학반 학생 20명이 포스코 송도 글로벌 R&D센터를 방문해 포스코 그룹의 현황과 각종 최첨단 스틸 소재 등 전시물을 관람하고, 강구조 실험동을 견학하여 과학기술 분야 진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한편, 5월 28일에는 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 겸 바이오 및 뇌공학과 석좌교수인 이광형 25회 동문이 모교를 방문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3차원 창의력"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강연을 하고 저서 "3차원 창의력 개발법(2012)"을 소개했다. 이광형 교수는 스스로 질문하는 습관을 만들어 창의력을 계발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잘 알고 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농기우회

회장 **이종문 · 22회**

제14회 동창회장배 바둑대회가 10월 5일(일) 모교강당에서 개최된다. 이 대회를 위해 각 기별 기우회장과 9월 4일(목) 오후 7시에 동창회관에서 준비모임을 가졌다.

그동안의 기별대항전 경과는 4강전에서 21회가 19회를 이기고, 23회가 17회를 이긴 후에 21회와 23회가 8월 23일(토) 한일바둑에서 결승전을 치렀으며 여기서 23회가 이겨 우승을 차지했다.

바둑TV 고교동문전에는 허수창 동창회장의 적극적인 후원과 상비군들의 노력으로 예선전을 통과한 후, 본선 32강 1회전에서는 의정부공고를 이겨 오는 9월 28일에 서울고와 16강전을 치른다.

선농당구회

회장 **이병주 · 15회**

선농당구회는 선농축전 후 9월 27일 대회를 개최한다.

14, 15, 16, 17, 19, 20, 21, 22, 23, 24, 25, 26회 등 총 12개 기수가 참가하며, 장소는 강남역 부근 조이클럽이다.

이번 대회의 특징이라면 혼성팀을 출전시켜 여자동문의 참여를 유도, 명실공히 남녀공학의 특성을 살리게 되었다는 점이다

선농수필 문학회

회장 **이용분 · 7회**

금년 가을 선농수필문학회는 2014년도 동인지 제5집 '강산의 등불되어'를 추석 직전 발간하게 됐다. 우리 서울사대부고 문학인들의 모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인지 제목은 조금 낯이 설지만 최복현 전 교장선생님께서 작사하신 우리의 교가 2절에 있는 글귀로 하기로 했다. 이 교가 내용은 버티고개 동창회 사무실 입구에 게시돼 있다. 2010년 제1집 '흘러서 그침없는'을 필두로 이제 제5집 '강산의 등불되어'를 발간함에 있어 이를 자축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작품을 쓰도록 독려키 위해 8월 6일에는 즐거운 회식모임을 했다

선농풍물패

회장 **조종만 · 15회**

선농풍물패는 11월 1일 동문음악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8월 28일부터 주 1회 2시간 정도 연습을 한다. 연습 장소는 선정릉역 3번 출구에

위치한 무형문화재 건물 지하 1층이다. 궁금한 내용은 조종만 단장(010-3766-0001)께 문의. 지도자는 중요무형문화재 남사당놀이 이수자이면서 선소리 산타령 전수자 김진무 31회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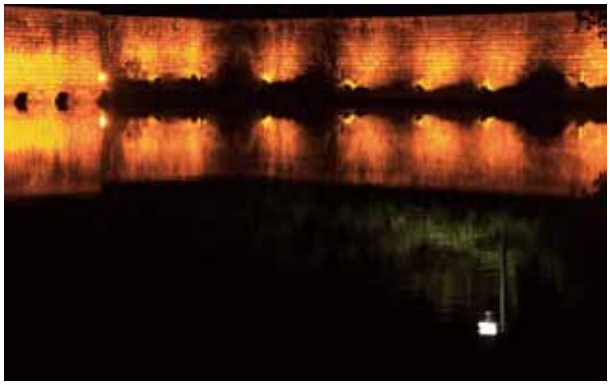
선봉회

회장 **윤제철 · 18회**

지난 6월 6일 괴산으로 야유회를 다녀왔다. 산막이길과 괴산호 유람선 승선 및 25회 부부가 운영하는 오미나라 탐방등 34명의 선후배가 어울려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선사회

회장 **이길우 · 13회**



선사회는 제5회 전시회를 6월 26일부터 1주일간 충무로 갤러리 이룸에서 성황리에 마치고 7월 한달 동안 4주간에 걸쳐 매주 토요일 포토샵 라이트룸 교육을 실시했으며, 8월에도 날짜를 수요일로 변경해 자발적으로 2회의 복습회를 갖는 등 이열치열로 이번 더위를 이겨냈다.

이번 라이트룸 학습에서는 역광 촬영에서 발생하는 화이트 홀 현상을 커버하는 방법과 어두운 영역의 디테일을 살려 사진의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등 포토샵을 활용해 사진의 작품성을 높일 수 있게 하는데 중점을 두어 실시했다.

막간을 이용해 광화문 지하 광화랑에서 열리는 전임 성기호회장의 '서울을 표현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4인의 합동 전시회를 감상했다.

선향회

회장 **김형연 · 23회**

선향회가 지난 7월 경기도 양평의 세미원에서 그리고 8월에는 덕수궁에서 '이토'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지난 8월 30일에는 강원도 홍천 샛강에서 번개 겸 야유회를 다녀왔다.

역우회

회장 **권태을 · 26회**

8월 23~24일 20여 명의 회원이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꼬꼬리꼬 농원(대표:이병국 30회)에서 하계모임을 가졌다. 선후배 회원들은 간단한 레크레이션과 족구 등으로 마지막 여름더위를 이겨내며 건강을 다졌다. 역우회 송년회는 11월 28일(금) 오후 7시 예술의 전당 1층 트랭블루에서 개최된다.

유우회

회장 **박형근 · 29회**

모교 유도부는 8월 29일(금) 학교 축제인 선농제에서 그동안 익혔던 실력을 선보였다. 구르기, 낙법, 자세, 맞잡기, 진퇴법, 걸기, 메치기 등 다양한 기술 시범을 보였으며 특히 장애물 낙법, 호신술 시범은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모교 유도부는 3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학생 회원이 절반

이상으로 여학생들의 관심이 높다.

유우회는 예(禮)에서 시작해서 예로 끝난다는 유도의 기본정신을 재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키우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재인동문회

회장 **이종문 · 22회**

지난 8월 19일 정기모임으로 부평에서 14명의 회원이 모였다.

회원들 중 신대식 5회 동문은 건강 회복 겸 귀촌하여 당분간 참석이 어렵다 하신다. 우영임 11회 동문은 손자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맘이 불편하고, 최춘석 22회 동문은 지리산에 요양차 내려가 있다고 하고, 이필한 19회 회장은 건강 회복이 더뎌 장기요양으로 병원을 계속 옮겨 다녀야 한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다.

10월 18일(토) 오전 10시 용산역에 모여서 기차를 타고 용문산으로 여행을 할 예정이다.

제주지회

회장 **김상림 · 21회**

제주평화연구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변대호 22회 동문이 갑작스럽게 서울로 이임하게 되어 겸사겸사 송별회 겸 번개 만찬행사를 7월 28일 제주시내 식당에서 가졌다. 바쁜 가운데도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32회 김명구 동문, 45회 김주황 동문이 제주지부에 새로 편입됐다. 약 한 달 전 원건희 26회 동문이 군산지역으로 전근 가고, 두 회원이 새로 온 것이다. 이날 특별히 윤병옥 22회 동문의 부군인 김정기(전 제주대학교 부총장)님이 참석해 주었다.

한편 김명구 동문은 제주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차득준 동문은 42회 이홍선 동문과 관광레저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우종 동문은 요즘 건강이 나빠져서 좋아하는 골프도 뜸하다고 한다.

윤병옥 동문은 작년에 새로 지어 이사간 전원주택 집들이를 아직도 안하고 있고, 이용로 동문과 김주황 동문은 우리 지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모'를 제안했는데 지회의 활성화가 크게 기대된다.

청구회

회장 **정진구 · 16회**

6월 24일 제337차 청구회 정기모임이 8팀(30명)의 선후배 동문들이 모인 가운데 뉴스프링빌 C.C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조동환 16회 동문이 83타로 우승했고, 메달은 박세환 30회 동문이 차지했다. 니어에 조남규 36회, 롱기에 오호진 30회, 여자메달 백문숙 32회, 여자롱기는 이현자 30회 동문이 차지했다. 한편 9월 23일 제8회 동창회장배 골프대회가 청구회의 주관으로 열린다. 150명의 남녀동문이 참여한 가운데 뉴스프링빌 CC에서 개최된다.

청암회

회장 **이주진 · 23회**

지난 5월 30일 박태권 7회 동문을 비롯해 이황원 11회, 이태길 13회 동문 등 10명의 동문이 부부동반하여 예술의 전당 IBK홀에서 "서울발레시어터(단장 김인희 & 예술감독 제임스 전)"의 발레 공연을 중심으로 한 "Talk & Concert"를 관람했다. 그동안 청암회 행사는 서울 근교산행을 위주로 하였으나 작년에 봄행사로 처음 마련하였던 음악회 행사에 반응이 좋아 금년에는 발레공연을 관람한 것이다.

연락처 : 임영희총무 ☎ 010-3303-0231

치과대학 사대부고동문회

회장 **김성직 · 23회**

7월 23일 강남에서 20여 회원이 모여 모임을 가졌고, 9월 21일에는 골프모임을 가졌다.

신구가 조화롭고 평범해서 더 좋은 '투투투'

소위 투투투(짝수 달 두 번째 화요일) 모임이라 칭하는 고양파주지회 정기모임에 참석했다. 모임에 참석한 동문들이 나누는 수인사가 참 따뜻하고 정다웠다. 취재하러간 나도 '아! 동문이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이었다. 이는 아마도 참석한 동문들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환한 얼굴로 반겨주는 이종오(20회) 회장 덕분인지도 모르겠다. 이종오 회장은 수백 명에 이르는 지회 동문들의 이름을 다 외우려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인간의 정, 동문의 정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출발부터 대성황을 기록했던 고양파주지회

고양파주지회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 2007년에 인하대 명예교수인 김선양 5회 동문이 박복출 5회 동문, 당시 일산 킨텍스 사장을 하던 김인식 20회 동문 등과 만나는 자리에서 제안되어 그 해 6월에 출범했다. 박임성 10회 회장, 이희자 12회, 김인식 부회장, 김영철 24회 총무, 한문식 28회 부총무 체제였다. 이들의 팀워크로 결성 첫 해 송년회에는 100명이 넘는 동문이 참석했다고 한다. 화려한 시작이었다. 그만큼 지역 동문 모임에 대한 갈증이 컸던 것이리라. 일산 지역을 중심으로 출범했지만 자연스럽게 인접한 파주까지 그 외연이 넓어져 현재의 고양파주지회로 정착했다.

지회 모임은 번개를 제외하고는 투투투 모임 형태로 1년에 6번의 정기모임을 하고 있다.

6월과 12월은 정기 총회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12월은 송년회, 6월은 야유회에 방점을 둔 더 큰 모임일 뿐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6월에는 계곡이나 들로 나가 가벼운 운동도 하면서 마음만이 아닌 몸도 부대끼며 정을 다진다. 이렇게 다져진 정이 얼마나 두터운지는 4회 김녕순 동문이 덕소로 이사 가시고난 후에도 그 정을 못 잊어 얼마 전까지 모임에 꾸준히 참석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최고의 회장': 이종오 동문은 지회동문 수백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려는 '명회장'이다.

지회가 성장하기까지에는 김녕순 동문처럼 윗대 선배들의 남다른 노력과 애정이 깃들어 있다. 신동운 6회 동문은 대학시절 학우는 물론 교수들까지도 그의 타임지 강의를 들으러올 정도로 영어실력가요, 이후 계몽사 사장, 팝송 해설가, 권투해설가, 가요번역가로 활동했다. 건강이 안 좋아지기 전까지는 꾸준히 참석하여 후배들과 정을 나누었다. 초대 회장을 맡았던 만능 스포츠맨 박임성 동문은 강인한 체력과 친화력으로 지회를 짧은 시간 내에 안정궤도에 올려놓은 분이다.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시는 윤춘영 8회 동문의 사랑도 지회의 울타리였다. 선배들이 다져놓은 터전에 30대 이후 기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 앞으로 지회가 더욱 활성화 될 것같다. 선후배의 조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고양파주지회다.

지회는 오프라인 모임만이 아니라 포털 다음에 '서울사대부고 고양파주동문회'라는 카페를 개설해 소통을 하고 있다. 당연히 총동문회 행사 소식을 전달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회 동문들의 개업 소식이나 경조사 소식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상부상조의 차원에서 동문들이 하고 있는 업종이나 직장을 소개하는 것도 동문 카페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8월 정기모임에서 만난 동문들에게 지회의 장점이 뭐냐고 물었을 때 '평범함'이라는 대답이 돌아 왔다. 누구의 강요도 화려한 이벤트의 유혹이 없어도 동문이 좋아서, 사람이 그리워서 나오고, 부득이해서 참석 못해도 다음에 부담 없이 나온다. 동문 모임이 지니는 편안함과 푸근함을 이보다 더 잘 드러낸 표현이 있을까.

김서중 31회 편집위원 sjkim@skhu.ac.kr

캘리포니아에 울려 퍼진 선농코랄의 화음

'초여름의 향연': 한줄기회는 매년 6월 말에 LA코리아타운에서 동문 음악회를 연다.

창단되어 1년 반 동안 매주 화요일, 그 기나긴 시간 동안 합창연습을 마치고 드디어 발표의 날이다. 선농합창 '님이 오시는지', 이어서 테너독창 '내 맘의 강물',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합창 메들리곡 '빨간 구두 아가씨/아빠의 청춘'으로 청중의 귀를 사로잡는다. 이어서 소프라노 독창(한광주, 16회 한영한 동문의 부인)으로 '오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뮤지컬 곡 합창에 이은 테너 독창(안성주, 16회)으로 '남몰래 흐르는 눈물'에 이르자 장내는 감탄의 박수가 그치질 않는다.

'초여름의 향연'은 이곳 남가주 부고 원로들의 모임인 '한줄기회'가 주최하여 매년 6월 말경에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의 제이 제이 그랜드 호텔에서 이미 5년째 열리고 있는 모임이다.

이날 아침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5회 최승육 동문의 다급한 전화 목소리… 고속도로 5번이 막혀서 제 시간에 도착 못할 것 같단다. 그러고 보니 늦어도 9회 안재훈 회장, 명찰과 테이블표 지판 등을 맡은 7회 윤병남 홍보간사 등이 모두 그 도로로 오는 사람들이다. 야단났다.

1회 류문기 대선배님의 건배사에 이어서 오찬, 만복(滿腹)에 모두들 한껏 기분들이 상쾌해진 후 도어 프라이즈, 소위 꽝 뽑기로 들어가고… 이어서 공연의 막을 올리고, 이게 매년의 식순인데 회장이 도착을 못한다니. 그냥 프로그램 무시하고 시작할 수밖에.

필자가 간간히 연단에 서서 저간의 경위를 설명하여 사과를 거듭하면서, 호텔연회장 책임자에겐 12시부터 식사를 각 테이블로 나르기 시작하라고 일렀다. 그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면 중앙에 앉은 8회 김영일 동문이 배고파 죽겠는데 밥 안주느냐고 짓궂게 소리소리 지른다.

때 마침 도착한 윤병남 간사와 의논하여 16회 최영일 총동창회 회장 인사부터 하고, 이어서 각자 인사를 간단 간단히… 마침 이곳 방문 중인 서울의 10회 전영실 동문이 참석해서 자상한 자기 소개가 있었고, 곧 이어 4회 이정화 전임 한줄기회장의 건배사와 더불어 샴페인 잔을 맞부딪치며 건배!

식사를 끝내고 도어 프라이즈 순서로 들어갔다. 최영일 동창회장이 협찬해 준 와인 24병에다가 우리 임원들이 마련한 와인 24병, 도합 48병의 와인이 상품이다. 올해도 작년처럼 합창단원들이 잭팟을 터트렸다.

이윽고 대망의 2부 순서로 들어가려고 합창단원들이 등단하기 시작하는데 안재훈 한줄기회장이 간신히 당도, 뒤 늦은 회장 인사를 마쳤다. 이어서 계속된 2부 순서 선농코랄의 공연광경은 서두에 표현했던 대로 감격 그 자체였다. '타향살이'와 '사랑으로'를 다 함께 부르며 마무리를 했다. 앵콜 곡은 '낭랑 십 팔세'… 이어 또 앵콜 또 앵콜.

그런데 "없습니다" 하는 윤병남 지휘자의 매몰찬 한마디에 만장이 대폭소. '흘러서 그침 없는 한강의 물과…' 제창 후, 재빨리 기념촬영에 임했다.

이날 '초여름의 향연'을 위해 봉사해 준 32회 이충호 동문의 부군 김보년씨, 협찬해 준 10회 이병응 동문에게도 감사한다.

이완규 6회 한줄기회 기획간사 warnerklee@aol.com

'앵콜 또 앵콜': 2부 순서를 빛낸 선농코랄 단원들

“어느덧 10년, 이젠 회갑 프로젝트 준비 중입니다”

2004년 9월. 평소 산에 관심이 많았던 박귀희, 한동성, 조병연, 이인영, 조왕제 동기들이 총동산악회의 설악산 서북능선 무박산행에 참가했다. 이를 계기로 그 해 12월, 9명의 동기들이 모여 30회 산악회를 시작했다. 이후 10년이 지나면서, 삼공산악회는 60여 명의 회원을 가진, 30회를 대표하는 산악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삼공산악회는 회장 김동흡, 산행대장 박원고, 대외협력 및 홍보이사 조병연, 내무총무 이현자, 외무총무 문영근, 감사 손승이 · 박소애 동기가 임원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인영 동기는 현재 총동산악회 전체 회원들을 이끄는 산행팀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동성과 조병연 동기는 지리산 화대종주를 비롯한 국내 여러 명산들을, 최창동 동기는 백두산과 일본 북 · 남 알프스 등 해외 명산을 오른 활동가이다. 또한 박귀희 동기는 지리산과 설악산 종주 및 일본 남 알프스를 종주해낸 삼공산악회 파워우먼이며, 윤현옥 동기 역시 바위를 좋아하여 암 · 빙벽을 수시로 즐겨 타는 멋진 여성 클라이머로, 모두 삼공산악회의 대표 인물들이다.

삼공산악회는 창립 이후 2005년 6월 지리산 종주, 2006년 1월 한라산 등반 및 9월 변산반도 30대 기수 특별 연합 산행, 2006년 11월 경주 신라의 달밤 165리 걷기행사 참여, 2007년 10월 오색부터 설악동까지 공룡능선 무박산행, 2008년 1월 한라산 특별연합산행 등으로 기반을 다진 이래, 2014년 현재는 국내 및 국외로 공식적인 월별 동기 산행과 총동창회 산행을 매월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

2013년 6월 20일부터 23일까지의 총동산악회 주관 3박 4일 일본 다이센(大山)원정 산행 때에는 삼공산악회 동기 17명이 참가했다. 일본 도치기겐 우쯔노미아에서 5년째 살고 있는 임승호 동기가 870km 거리를 밤새 11시간 동안 리무진을 타고와 동기들을 맞아주었다. 반갑고 행복했던 짧은 1박 2일의 시간이 지나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임승호 동기와 아쉬운 작별을 고하던 시간, 배에 올라 멀리 항구 철조망에서 손을 흔드는 친구를 보고 아쉬움과 미안함, 고마움으로 눈시울을 적셨다. 나중에 들으니 승호 역시 항구 화장실에서 혼자서 눈물을 닦았단다. 동기들의 진한 우정과 사랑을 확인한 소중한 산행으로 우리들 가슴속 깊이 영원히 기억될 행복한 산행이었다.

삼공산악회는 회갑기념으로 도전과 희망 프로젝트인 “3060 남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페루 마추픽추에서 잉카트레일을 거쳐 볼리비아 티티카카 호수를 거쳐 우유니 소금 사막을 횡단하여 칠레 북부 아타까마 달의 계곡, 살바도르 달리 계곡, 간헐천과 노천온천, 눈덮인 안데스를 등반할 께획이다. “3060 남미 프로젝트”를 위해 2014년 7월 7일에 정연삼 추진위원장겸 가이드가 선임되었고, 대망의 발대식은 2019년 11월 11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야트막한 뒷동산을 하루에 30분만 걸어도 5년은 더 산다는 연구결과가 말해주듯이 푸른 숲길을 걷는 등산은 최상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싱그러운 공기, 그림 같은 절경, 새들의 지저귐과 맑은 계곡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삼공산악회에 당신을 초대한다!

“친구야! 산에 가자!”

마지막으로 삼공산악회 창립을 주도했고 많은 동기들을 위해 아낌없이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고 조왕제 동기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김동흡 30회
rugerkdh@hanmail.net

삼공산악회는 회원 60명을 가진 30회 대표 동아리이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

선농축전에 많은 동문들이 오셔서

화합의 場을 펼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는 12월 10일(수) 정기총회 및 송년회에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총동창회장 **허수창** 오원물산(주) 대표

변덕

박문태 11회 著
신아출판사 2014. 5
485쪽 1, 2권 각 13,000원

울산대학교 교수인 동문이 2년 간의 집필로 500페이지가 다 되어가는 장편소설 ≪변덕≫을 출간했다. 대신 책값은 11회 동창회 기금으로 전액 기부한다고 한다. 책 내용은 교육의 시대적 문제점과 교육자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박동문은 모 일간지 동화 현상모집에 우수상으로 당선돼 동화작가로도 활동했다.

아버지의 팡세

오세윤 11회 著
수필과 비평사 2014. 5
296쪽 13,000원

오세윤 수필가의 여섯 번째 저서인 산문집 ≪아버지의 팡세≫를 수필과 비평사에서 펴냈다. 작가의 이번 산문집에는 42편의 수필과 2편의 소설이 실려 있다. ≪등받이≫를 상재한 이후 3년 만에 이 책을 펴낸 작가는 6·25전쟁을 겪은 세대만이 느끼고 쓸 수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다. 난대 이응백 선생이 '오세윤의 산문은 시와 산문의 자유자재로운 교직'이라고 평한 적이 있을 정도로 시적 이미지와 풍성한 산문집이다.

칠보문화사 –일본 칠보의 역사를 읽다

모리 히데토 著 윤기숙 20회 옮김
미진사 2014. 6.
251쪽 20,000원

2005년 도쿄 소재 한국 학교장을 역임한 역자는 퇴직 후 칠보공예에 재미를 붙이고 있던 차 이 책을 번역하게 되었다. 고대 칠보금구를 시작으로 1980년대의 칠보까지 일본 칠보공예의 흐름을 볼 수 있으며, 더불어 칠보와 관련이 깊은 동과 도자기, 유리의 역사까지도 만날 수 있는 책이다. 또한 일본의 칠보가 어떻게 발전되고 활용되어 왔는지를 서술하며 그 과정에서 칠보를 발전시킨 칠보 명인들과 그들을 후원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서술하고 있다.

강산의 등불되어

이용분 외 17인 著
아름다운세상 2014. 9.
267쪽 12,000원

2006년 초가을부터 매주 삶의 지혜와 수필 작법에 관한 강의를 듣고 자신감을 얻어, 그 작품들을 모아 2010년부터 매년 동인지를 1권씩 발행했다. 벌써 그 다섯 번째 문집 '강산의 등불되어'가 발간됐다. 이들은 서울사대부고 선후배의 인연으로 한 울타리 안에 운명적인 만남의 장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고 두터운 신뢰를 구축하며 보다 높고 아름다운 이상을 글로 나타내려는 일념으로 한해 한해 정과 필력을 쌓아 올렸다.

선농문화포럼, 제8기 인문·교양강좌 안내

〈선농 인문·교양 강좌〉는 2012년부터 '서울시 평생교육강좌'로 선정돼 누적수강생 3,915명이 강좌를 수강했습니다. 2014년 하반기 〈선농문화포럼 제8기 인문·교양 강좌〉를 9월부터 10월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무료강좌로 운영하니 수강을 원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4년 9~10월 〈목요강좌〉안내

NO	일정	강좌내용	강사	강의시간	비고
1	9/4(목)	여성 교육 바뀌어야한다	김태련 아이코리아 회장 이화여대 명예교수	오후 5시30분 ~7시30분	무료
2	9/11(목)	직업과 명리사주	김동완 동국대 사회교육원 교수 한국역학학회 회장		
3	9/18(목)	일본에 심은 한국문화	정영호 단국대 석좌교수 前단국대학교 박물관장		
4	9/25(목)	어느 지독한 택시기사의 이야기	이창우 법인택시 기사		
5	10/2(목)	21세기 창의적인 인재육성	김영길 前한동대학교 총장		
6	10/16(목)	스피치도 경쟁력이다	김수민 前극동방송 방송부장 라온위즈 대표		
7	10/23(목)	나눔생활과 행복	문광순 참행복 나눔운동 총괄이사		
8	10/30(목)	예절과 웃음의 힘	박수영 前대한항공 연수원 전임강사		

※상황에 따라 강좌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장 소:** 서울사대부고 동창회관 3층 선농홀(6호선 버티고개역 1번출구)
신 청: 사단법인 선농문화포럼 www.sunnongforum.org

서울시 중구 다산로 43 사대부고 동창회관 401호 (우)100-450 Tel : 02-2233-7871 Fax : 02-2233-7851 E-Mail : sunforum@daum.net

“북에서도 잘 지내니? 생사도 알 수 없는 친구야”

1947년, 김영순(좌)과 남상숙이 청량대 뒷동산에서 찍은 사진

세월은 가도 사진 속의 모습은 변하지 않고 남아 있다. 6 · 25 전쟁 당시,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어려운 피난길에서도 소중하게 챙겨온 사진에서는 아직도 소녀이며, 청춘의 모습이 간직되어 있다.

2005년도, 4회 동창회 인터넷 사이트에서 납북된 누님을 그리워 하며 올린 재미교포 후배 남상혁(13회)의 글을 읽은 일이 있다.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었으면 누나의 동기 동창생들로부터 누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으랴.

사연 속에 초등학교 3학년 때 헤어진 큰 누님(4회 남상숙)의 사진이 한 장도 없어, 2세에게 고모의 모습을 알려줄 수 없음이 안타깝다는 글을 읽고 내가 간직하고 있는 사진을 찾아봤다.

오래되어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마침 나와 어깨동무하고 정답게 찍은 사진 한 장을 발견하여 사이트에 올려 주었더니 “선배님! 귀한 사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시작한 댓글과 함께 반갑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구구절절 전해왔다.

점점 기계문명이 발달하니 인간사회의 정은 메말라 혈육 간의 정감도 점점 희미해져 가는 세상인데, 집안의 2세들에게 납북된 누님의 모습조차 알려줄 수 없다고 안타까워 하는 사연에 감동받고 사진을 올리게 된 것이다. 댓글 말미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 있었다.

> “이제... 그냥 사진 속의 젊은 누나의 모습, 가슴에 품고, 대신 더 많은 누나들 모시고, 살아가야 겠지요.
> 선배 누님, 형님들, 이제 동생 하나 더 생기셨어요. 많이 가르치고 사랑해 주세요.
>
> 샌프란시스코에서 부고 후배 남상혁 올림.

소식조차 알 수 없는 그리운 남상숙 친구여, 북에서라도 아무쪼록 건강하고, 현실에서 상봉하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영순 4회 sn2858@hanmail.net

학생, 학부모, 교사가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는 행복한 학교 **서울사대부고**

학생 임원 수련회 실시(2014. 7. 26 ~ 7. 27)

2014년 1, 2학기 정·부회장 및 동아리 부서장, 학생 임원들을 대상으로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에서 1박 2일간 학생 임원수련회를 가졌다. 다양한 체험활동 및 리더십 훈련과 함께 밤늦게까지 분임토의를 거쳐 선농제를 포함한 학교 발전에 관한 의견도 모아보고 주변의 문화체험을 통해 리더로서의 소양을 더욱더 가다듬게 됐다.

과학앰배서더 초청 강연

5월 28일 과학앰배서더 초청 강연이 본교에서 이루어 졌다. 이 행사는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명사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는 행사인데, 이날은 이광형(KAIST교수, 바이오 및 뇌공학자, 25회) 동문이 초청됐다.

이날 이광형 동문은 모교 후배들에게 '3차원 창의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 학생들에게 과학적 소양은 물론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 주었다.

진로의 날 운영

7월 18일 모교에서는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다양한 직업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직접 체험하고 느낌으로써 장차 우리나라의 역군으로 발돋움하는데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신문 및 방송 제작체험, 경찰청 방문을 통한 경찰체험, 제과 제빵 체험 등 20여 곳에서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며 미래의 꿈을 가꾸는 체험을 했다.

밤새워 책 읽기 행사

7월 18일(금) 오후 6시부터 19일(토) 오전 8시까지 장장 14시간에 걸쳐 '2014 독서캠프 – 밤새워 책읽기' 행사가 열렸다. 독서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정작 아이들에게 책 읽을 시간을 주지 않는 시대에 본교에서 열린 '밤새워 책 읽기'는 책에 푹 잠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에서 인상적인 프로그램이었다.

이날 학생들은 함께 모여서 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모둠별로 책갈피를 만들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맛난 간식도 나눠 먹으면서 서로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행사의 백미인 새벽까지 이어진 '밤새워 책 읽는 시간'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2014년 선농제

'2014년 선농제'가 전시마당과 공연마당, 농구대회, 풋살대회 등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8월 29일 성대히 개최됐다.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알차게 준비해 수준 높은 종합발표회라는 평을 받았다. 강당에서는 공연마당이 진행됐으며, 예년과는 달리 올해는 실내공간을 버리고 운동장과 솔밭을 이용해 동아리별 특색 있는 전시와 이벤트를 준비해 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창석 38회 모교 체육교사 bomb274@yahoo.co.kr

꿈과 희망,
소재와 에너지로
더 나은 세상을!

posco

거실의 TV 속에도

할아버지의 휠체어에도

동생들의
태양열 온수기에도

누구에게나 포스코가 있다

삼촌의
블랙사틴 태블릿 속에도

엄마의 마그네슘 프라이팬에도

누나의 첫 차 속에도

큰 형의 자전거 속에도

공부방의
LED 전구에도

당신은 매일 생활 곳곳에서
수 많은 포스코를 만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철강 경쟁력을 바탕으로
첨단 신소재, 그린 에너지 사업을
펼쳐가는 포스코
더 나은 내일로
당신 곁에 다가가겠습니다

글로벌 철강
세계 최초 자동차용 초고강도강 등 World First, World Best 제품 양산 / 해양플랜트 등 고품질 에너지 강재 시장 선점 /
2014년 WSD(World Steel Dynamics) 세계 철강기업 경쟁력 1위(5년연속)

첨단 신소재
세계 최초 리튬 추출 기술 개발(2차전지 핵심원료로 전기자동차, 휴대폰 등에 쓰임) 및 음극재 생산 /
국내 최초 마그네슘 제련공장 준공 및 고부가가치 소재(자동차강판 등에 사용되는 망간) 생산 / 제철부산물 활용한 탄소소재사업

그린에너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석탄화력 등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 / 차세대 에너지-연료전지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화 /
풍력(탐라해상풍력), 태양광(미국 네바다주, 신안 태양광 발전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HanmiGlobal

건설사업관리 선도기업, 한미글로벌

「그린리모델링」의 기준이 되다!

[One-Stop 그린리모델링]

자산가치 향상
- 임대 수입 증가
- 트렌드 변화 대응
- 경쟁력 향상

수익성 향상
- 사업비 절감
- 공기 단축
- 유지 관리비 절감

거주자 만족도 향상
- 기능성 향상
- 쾌적성 향상
- 안전성 확보

그린리모델링 문의 : 친환경 사업부 070-7118-1477 www.hmglobal.com

한미글로벌 그린리모델링은 **친환경 컨설턴트 에코시안, 제휴사 미쓰비시지쇼 설계**와 함께 합니다.

교보생명 본사 **국내 최초 재실상태 리모델링**
테넌트 이전 / 배치 컨설팅, 에너지 진단, LCC 분석, 설계 / 시공 관리

서울스퀘어 **대형 건물 전면 리모델링**
에너지 진단, LCC 분석, 설계 / 시공 관리